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2017 정기 춘계답사

역사학과 답사추진위원회

<목차>

- 답사일정 p 2
- 인사말 p 3
- 전북, 충남 개관 p 4
- 첫째날(학교-익산-정읍)
 - ▷ 미륵사지 p 7
 - ▷ 왕궁리 유적 p 11
 - ▷ 황토현 전적지 p 14
- 둘째날(정읍-고창-남원)
 - ▷ 내장사 p 18
 - ▷ 고창 고인돌 유적지 p 20
 - ▷ 고창읍성 p 22
 - ▷ 실상사 p 24
 - ▷ 만복사지 p 27
- 셋째날(남원-전주-아산-학교)
 - ▷ 경기전 p 30
 - ▷ 아산 현충사 p 32
- 춘계답사 세미나 p 35
- 답사를 함께하는 사람들 p 59
- 즐거운 답사를 위한 TIP p 60
- 편집후기 p 61

<답사일정>

<첫째 날>

세종대학교 출발

▷점심식사

1. 미륵사지
2. 왕궁리 유적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4. 황토현전적지
5. 정읍시립박물관

▷저녁식사

▶숙소: 세르빌 호텔

<둘째 날>

▷아침식사

1. 내장사
2. 선운사
3. 고창고인돌박물관

▷점심식사

4. 고창읍성
5. 실상사
6. 만복사지

▷저녁식사

▶숙소: 켄싱턴 리조트

<셋째 날>

▷아침식사

1. 국립전주박물관
2. 전주역사박물관
3. 경기전

▷점심식사

4. 현충사

*세종대학교 도착

답사위원회 인사말

답사추진위원장 강 태 규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답사부장 강태규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17학우 여러분들과 여러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역사학과 춘계답사가 다가왔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해지는 날씨로 기분 좋아지는 3월에 역사학과 학우 여러분들과 춘계답사를 가게 되어 저 역시 많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답사 진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답사부장을 맡아 사전답사를 다녀 온 날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춘계답사를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는 만큼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큼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될 지역은 전라북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전북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익산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정읍, 우리 조상들의 삶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고창, 실상사, 만복사지 등 불교 관련 유적이 있는 남원, 마지막으로 조선왕조를 만들어낸 전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답사는 답사지가 많고 일정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곳을 선정했고, 학우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답사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유익하고 소중한 답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답사부장을 맡고 처음 가는 답사입니다. 3년 전 아무것도 몰라 답사 때 선배들을 따라갔던 제가 답사라는 학과 주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답사준비를 부원들과 열심히 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은 답사가 되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답사의 큰 틀을 잡아주신 하문식 교수님과 사전답사 및 답사 관련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엄태건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사전답사 및 답사부 사무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15학번 장효봉 학우와 김다운 학우 그리고 답사추진위원회 홍은채 학우, 박성주 학우, 서민우 학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답사 관련하여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모든 학우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답사추진위원장 강태규 올림

전라북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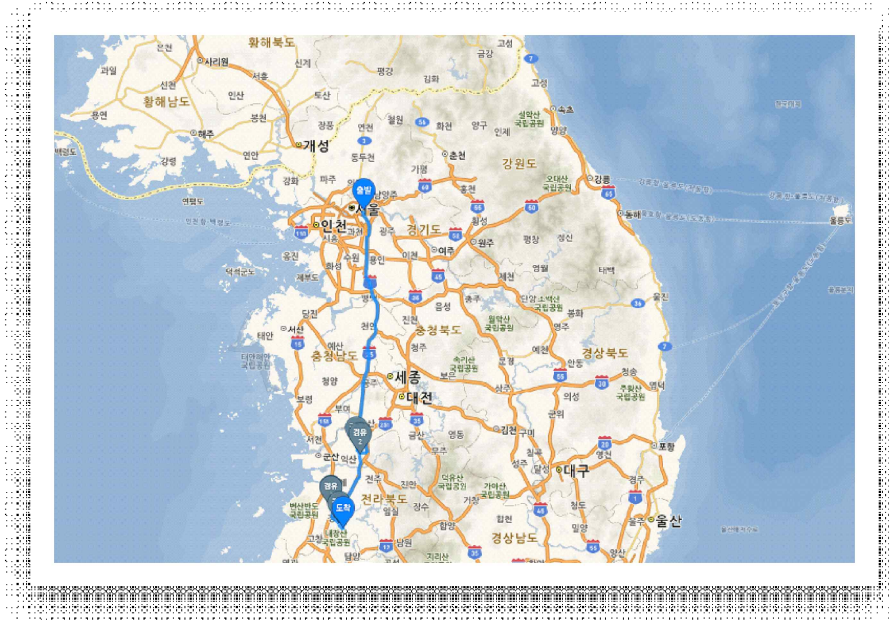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이다.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남도와, 동으로는 소백산맥으로 경상도와, 남으로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라남도와 접한다. 도의 서부 지역은 황해와 접하며 동진강과 만경강이 흘러 바다로 유입한다. 이들 두 하천 유역은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이룬다. 하천의 하구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되어 있다. 동쪽의 장수군 수분리(水分里)에서 금강이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면서 유역에 형성된 고을이 무주·진안·장수군이다. 이 일대를 무·진·장 지역이라고도 일컫는다. 도의 남쪽은 남해로 유입하는 섬진강의 상류에 해당된다. 이 하천은 진안군 백운면과 장수군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八公山, 1,151m)에서 발원하여 오수천, 요천 등을 합류하면서 전라남도로 흘러나간다. 한편, 남원군 운봉면 일대를 흐르는 람천은 낙동강 수계에 속한다.

전라북도 지명은 1896년(고종 33) 전국이 13도로 개편되면서 이전의 전라도를 분리하여 남북도로 나누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전라도' 지명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시대부터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9주 5소경 체제하에서 전라도 일대는 전주(全州)와 무주(茂朱)에 해당되었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 12목제하에서는 전주목·나주목·승주목이 해당되었으며, 10도제하에서는 강남도(江南道, 현 전라북도 일대)와 해양도(海陽道, 현 전라남도 일대)로 불렸다.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을 거쳐, 현종 때 5도양계제를 실시하면서 이전의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 칭하며 처음 사용되었다. 도 지명은 강남도와 해양도의 소속주(州)였던 전주와 나주의 머릿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당시 전라도에 속한 군현은 1목 2부 18군 81개 현이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1407년(태종 7)에 8도제가 실시되면서 다른 지역은 지명이 대부분 바뀌었으나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명을 유지하였다. 당시 행정 편의상 전라도를 좌·우도로 나누어 동부 산악지대는 좌도로, 서쪽의 평야지대는 우도로 일컬었다. 인조 때 전남도(全南道)·광남도(光南道), 1728년(영조 4)에 전광도(全光道)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일시적이었다.

1895년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행정지명으로서 '전라도'는 없어지게 되었다. 이 제도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폐지되고,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이전의 전라도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누면서 지명이 생겨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25개였던 군현은 1부 14군으로 통폐합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1963년 금산군을 충청남도로, 구례군을 전라남도로 편입시키는 등 몇 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오늘에 이른다. 현재 6개 시 8개 군을 관할한다.

<첫째 날>



세종대학교->미륵사지->왕궁리

유적->동학농민혁명기념관->황토현전적지->정읍시립박물관->
숙소

미륵사지
(彌勒寺址)



종목 : 사적 제150호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시대 : 삼국시대 - 백제

분류 : 사찰 터

발표자 임영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절터로, 639년(백제 무왕 40)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설화로 유명한 사찰이다.

이에 관하여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려고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도착했는데 미륵삼존이 못 속에서 나와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했다. 왕비가 왕에게 말했다.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제 간곡한 소원입니다.”

왕이 절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 메우는 일을 물으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허물어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미륵법상 세 개와 회전과 탑과 나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다.

국보 제11호인 동양 최대의 미륵사지 석탑과 보물 제 236호인 미륵사지 당간지주가 있으며, 1974년 8월 원광대학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 때 동탑지도 발견되었다. 건물지는 백제와 고려의 유구가 복합되어있다.

발굴을 통해 확인된 가람배치를 보면 동탑(東塔)과 서탑(西塔)이 있고 그 중간에 목탑(木塔)이 있으며, 각 탑의 북편에 금당의 성격을 가진 건물이 하나씩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탑과 금당을 한 단위로 구분하는 회랑(回廊)이 있어 동쪽은 동원(東院), 서쪽은 서원(西院), 중앙은 중원(中院)이라는 개념의 삼원식(三院式) 가람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가람배치는 동양 고대가람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특수한 가람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륵사지 가람배치를 보면, 자북(磁北: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에서 약 25° 서쪽으로 기울어진 축선상(軸線上)에 중원을 배치하여 남에서부터 중문(中門), 좌우로 복도의 성격을 띤 남회랑(南回廊)·목탑·금당이 배치되어 있고, 주위는 동회랑(東回廊)·서회랑(西回廊)·북회랑(北回廊)으로 둘러져 있다.

또, 중원의 동서 양측에는 중원의 남북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동원·서원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 이들의 동회랑과 서회랑은 중원의 회랑과 겹하여 사용하도록 되었다. 즉, 회랑의 전체배열로 보아 남회랑은 동원의 동쪽 끝에서부터 서원의 서쪽 끝까지 중문과 연결되어 일직선상에 놓였다.

각 원(院)의 동측 또는 서측에 놓이는 측랑(側廊)은 동원 또는 서원과 중원 사이에서는 중원의 측랑과 겹용하도록 배치하였다. 특히 이들 각원의 내랑(內廊)을 한정지어 주는 동서회랑의 중심거리와 그 내랑에 있는 금당의 기단 앞면 길이와는 비례가 맞아, 각 원의 건물규모에 따라 내부공간이 잘 조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이 특기할 사실이다.

또한, 남회랑과 각 측랑과는 기단(基壇)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어 건물이 각각 독립된 것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기와류를 주로 하여 총 6,500여 점으로 백제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기와가 수습되었으며, 특히 서까래[椽木] 끝에 붙이는 녹유연화문연목와(綠釉蓮花文椽木瓦)는 백제기와로서 다수 출토되었다. 문자가 새겨진 기와에는 ‘彌勒寺(미륵사)’, ‘國五年庚辰(국5년경진)’, ‘姚奉院(요봉원)’, ‘至元四年(지원4년)’, ‘天曆三年(천력3년)’ 등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탑 1기와 금당이 짝을 이뤄 3개의 원(院)으로 구성된 배치이면서, 중앙에는 목탑, 좌우 양쪽에는 석탑으로 주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절이 언제 없어지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들어 17세기경에 폐사(廢寺)된 뒤 서탑(西塔) 및 당간지주(幢竿支柱) 등의 일부 석물만 남았으며, 사역(寺域)은 경작지와 민가로 변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미륵사지 석탑

백제 최대 사찰이었던 미륵사지의 3원(三院) 가운데 서원의 금당 앞에 있는 탑으로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거의 절반 정도만 남았다. 현재 남아있는 국내 최대의 석탑이며 동시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해체수리 중에 초층 탑신 내부 심주에서 완전한 형태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사리장엄에는 금제사리호, 유리사리병, 청동합 6점, 은제관식 2점, 은제과대장식 2점, 금동덩이(金銅錠) 3점, 금제 족집게 1점, 유리구슬 외 다수 유물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기해(己亥)년명 탑지를 통해 당시 왕비가 639년(무왕 39)에 탑을 건립하면서 사리를 봉안했음이 확인되었다.

탑은 동북쪽을 중심으로 절반가량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탑의 재질은 화강암으

로 기단부와 탑신부가 남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탑신은 동북측으로 6층까지 남아 있다.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석과 면석, 갑석으로 이루어진 가구식 기단이다. 하층기단의 지대석은 확인할 수 없고 여러 매로 이루어진 면석과 갑석을 놓았다.



동면 좌우측 갑석 모서리에는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2구의 신장이 배치되었다. 상층기단은 하층기단에 비해 높는데 여러 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고 그 위로 갑석을 덮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모두 결실된 상태이다.

탑신은 현재 6층까지만 남아 있는데 각 부분을 수매의 돌로 짜 맞추어 마치 목조건축의 결구를 연상시킨다. 초층 탑신은 초석을 놓고 민흘림(엔타시스)이 뚜렷한 기둥으로 각 면 3칸을 나누었는데, 목조건축과 같이 그 내부를 벽체처럼 구성하였다. 초석과 초석 사이에는 고막이 석과 하인방을 놓았고 기둥과 기둥 상부에는 창방(昌防)과 평방(平枋)을 두었다. 초층 탑신 중앙에는 사방으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두었는데, 내부 중앙에는 거대한 사각기둥으로 심주를 두었다. 2층 이상의 탑신부도 구조에 있어 1층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여러 매의 판석으로 결구되었는데, 처마는 비교적 얇은 편이며 모서리에서 살짝 반전한다. 모서리에는 상하로 원공이 있어 풍경을 매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옥개석 아래로는 3단의 층급받침을 두었는데, 5층부터는 4단으로 늘어난다. 옥개석의 상단에는 1층과 2층은 1단, 3층부터는 2단의 받침을 두어 상층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복원 층수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먼저 복원된 동탑은 9층(27.8m)이다. 6층 서탑과 사료들을 근거로 9층으로 결정하고 1992년 재건했다. 그러나 9층이 아니라 7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동탑 논란을 고려해 서탑은 원형 유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콘크리트로 보수돼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6층까지만 복원한다는 것이다. 층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후대에 복원과정도 하나의 역사로 남겨두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익산 천도와 미륵사지

당시 백제는 신라에 의해 성왕이 사망하고 위덕왕 이후 혜왕, 법왕이 즉위 이듬해에 사망하는 등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다. 그에 따라 귀족세력은 성장하게 되고 왕권이 취약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수도였던 사비는 예로부터 귀족 세력의 기반이었다. 이러한 정국에 무왕이 즉위하게 된다. 무왕은 잘 알려져 있는 서동설화의 주인공이다. 기록에는 법왕의 아들이라 하지만 혜왕과 법왕 등 다른 왕은 맏아들, 둘째 아들 등 구체적인 기록인 반면 무왕은 단지 법왕의 아들로만 기록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왕의 서자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동설화가 사실이라면 무왕은 마 캐던 소년이다. 따라서 정통성 면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익산 천도를 추진하게 된다.

익산 천도는 왕권 강화 단일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먼저 익산은 무왕의 고향이었

으며, 과거 마한의 정치적 기점이기도 하였다. 비옥한 토지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 증대도 기대되었으며, 바다로 이어지는 금강을 끼고 있어 무역과 수상교통의 발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무왕은 익산 천도를 통해 백제의 부흥을 꾀하였던 것이다.

물론 과연 익산 천도가 실현됐는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많다. 하지만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왕궁 정전 터도 발견이 되었고 공방, 대규모 화장실 유구 등이 발견되면서 점차 익산 천도를 뒷받침 하거나 수도 예정지였다는 근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륵사지는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사이트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메모장

익산 왕궁리 유적
(益山 王宮里 遺蹟)



종목: 사적 제 408호

소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 외

시대: 삼국시대

분류: 선사유적

발표자 조운영

왕궁리 성지라 불리우는, 왕궁리 유적

1998년 9월 17일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 유적으로 면적은 21만 6,862㎡에 이른다. ‘왕궁리 성지’라고도 부르며 마한·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이 전해지는 유적이다. 발굴조사한 결과, 이 유적은 적어도 세 시기(백제 후기~통일신라 후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탑 동쪽으로 30m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가마 2기를 발견했다. 특히, 탑을 에워싼 주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평지성으로 생각되는 성곽 유물을 찾았다.

성곽의 모습은 현재 발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곽 안팎으로 폭이 약 1m 정도로 평평한 돌을 깔아 만든 시설이 발견되어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지역 안

에 있는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289호)과 절터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이 발견되어, 백제 후기의 익산 천도설이나 별도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왕궁리 유적, 백제사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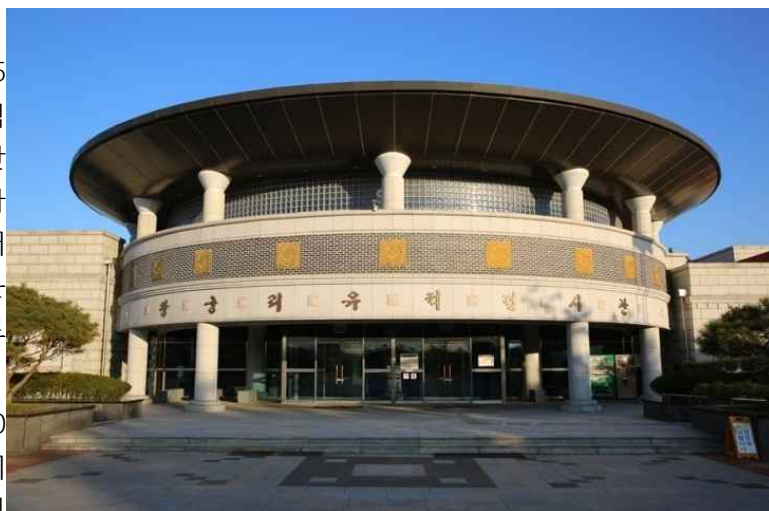
왕궁리 유적은 인접한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힌다. 크기를 떠나 왕궁리유적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왕궁리유적터가 백제의 왕도였다는 왕도설과 백제 후기 익산 천도설 등의 역사적 가설에 뒷받침이 되는 유적이기 때문이다.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학설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익산읍지> 등의 문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곳이 '옛날 궁궐터' '무왕이 별도(別都)를 세운 곳', '마한의 궁성터'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와 왕궁리유적의 발굴로 익산 왕도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왕도설 등은 아직까지 백제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왕궁리유적전시관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왕궁리5층석탑이 위치한 왕궁리유적 남측에 건립되어 2008년 개관한 전시관으로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소개하고 출토유물을 전시하여 문화교육장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 발굴조사 결과 백제 무왕대에 왕궁으로 건립되어



경영되다 후대에 왕궁의 중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이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시관에서는 왕궁리유적의 발굴조사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중요 출토유물을 전시하여 왕궁리유적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백제기와를 관람객이 직접 만져보면서 기와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목판찍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백제 왕궁터는 우리나라 고대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 담장과 함께 왕이 정사를 돌보거나 의식을 행하던 정전건물지를 비롯한 14개의 백제 건물지와 백제 최고의 정원유적, 금, 유리, 동 등을 생산하던 공방지, 우리나라 최고의 위생시설인 대형화장실 유적 등이 조사되어 왕궁의 축조 과정과 왕궁에서의 생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유물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중 300여 점을 선정·전시하였는데, 왕궁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금제품, 유리제품, 수부(首府)명 인장과, 전달린토기 등과 함께 연화문 수막새, 각종 인장과와 토기류, 금과 유리제품을 생산하던 도가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왕궁리유적전시관 <http://wg.iksan.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메모장

황토현전적지
(黃土峴戰跡地)



사적 : 제 295호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시대 : 조선시대

분류 : 전적지

발표자 홍상원

배경

19세기 말의 조선왕조는 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매관매직, 탐관오리의 횡행을 초래한 관료기강의 문란, 그리고 봉건적 신분체제의 파탄은 잔반계층, 서얼, 상민, 공·사·노·비 등 사회 불만계층을 형성하여 이들이 동학농민군세력에 결집되는 원인을 만들었다. 이와같이, 정치기강의 문란과 사회적 불안은 한편 민중의 동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화적의 횡행과 민란의 발생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삼남지방에서 가장 심하였고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연결되었다.

전개

동학농민운동의 첫번째 시발점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났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은 일어나게 된다.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삼아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봉준은 동학의 접주자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집강에게 보내는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봉기를 망야함과 동시에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 도소를 정하고 4개향을 결의하였다.

이듬해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정익서·최경선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관아를 습격하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된 이용태의 포악한 보복조치에 분개한 농민들은 다시 꺾기하였다.

전봉준은 4월 하순 전라도 각지의 동학접주들에게 포고문을 보내어 보국안민을 위해 봉기할 것을 종용하였다. 각지에서 모인 동학농민군은 백산에 이르러 진을 치고, 5월 11일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무찌른 후 전읍, 고창, 영광, 함평 등을 차례로 함락하고 이어 장성의 홍릉촌에서 정부군을 대파한 후, 계속 북진하여 6월 1일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으며 뒤따라 일본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출병하게 된다.

정세가 이에 이르자 농민군은 서울로 쳐들어가서 권귀들을 멸한다는 목표를 유보하고 외국군의 철변을 당면과제로 설정, 정부와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실시를 조건으로 전주화약을 맺었다. 전주화약 성립 후 농민군은 철수하였고, 정부는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오히려 궁정을 침입하여 민씨세력을 제거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하였다. 한편 청·일전쟁을 유발시켜 승리한 뒤, 그들의 조선침략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내정개혁을 요구하는 등 제국주의적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은 정부군과 합세하여 삼남의 농민군 소탕을 준비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삼례집회를 소집하여 반외세, 반침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재봉기하였다. 2차 봉기에는 남북접이 결합하여 10만에 이르는 농민군을 이루었으나 잘 조직되고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의 합동공세로 1894년 12월 4일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궤멸적인 손상을 입고 패배하여 논산방면까지 후퇴하였다. 그 후 계속 추격을 당하다가 12월 11일 금구와 태인에서 농민군 전체가 최후의 결사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그 후 각지에서는 농민군 소탕작전이 계속되었다.

의의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하고말았으나, 중세사회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조선후기이래 진행되어온 반봉건 농민항쟁의 총결산이자 근대 민중항쟁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외세의 침략에 대한 극복을 위해 투쟁하였던 반침략 반외세 투쟁의 선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근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문화컨텐츠닷컴 - 황토현전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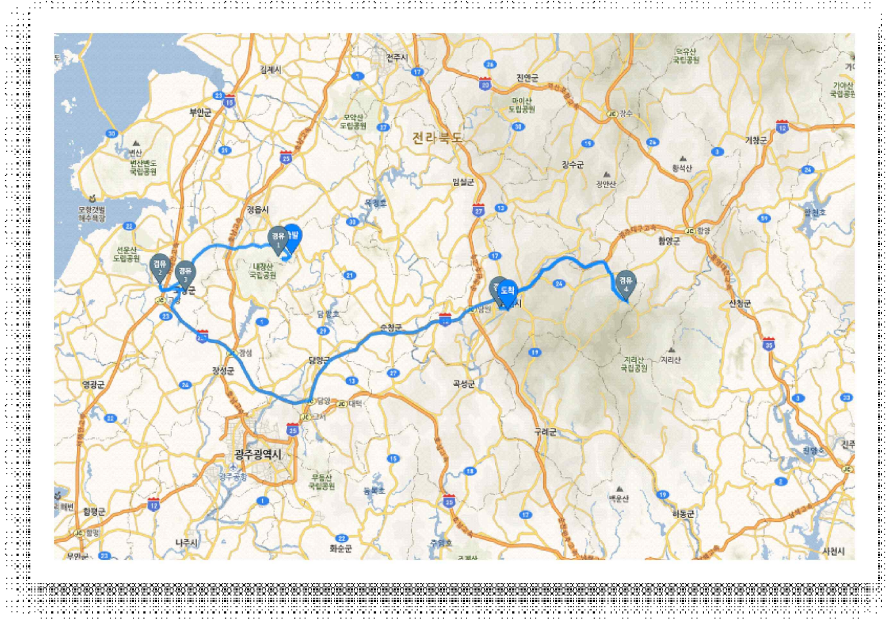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content_id=cp020807370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202&cid=46623&categoryId=46623>

메모장

<둘째 날>



숙소->내장사->고창고인돌박물관->고창읍성->실상사->
만복사지->숙소

내장사
(內藏寺)



종파: 대한불교조계종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내장동 588)

시대: 삼국시대

분류: 사찰

발표자 고희석

●연혁

옛 내장사는 660년(백제 의자왕 20) 환해의 초창으로 세워졌으며, 현재의 사찰은 본래 영은사(靈隱寺) 자리인데, 636년(백제 무왕 37) 영은조사가 50여 동의 대가람으로 창건한 절이었다. 1095년(고려 숙종 3) 행안선사가 건물을 중창했는데, 1539년(조선 중종 34)에 조령(朝令)으로 소각되었다. 1557년(명종 12) 희묵이 법당과 요사를 수축하여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는데, 1639년(인조 17) 부용이 절 건물을 개축하였다. 그 뒤 1779년(정조 3) 영운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요사를 개축하였으며, 1938년 매곡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을 신축하였는데 6·25전쟁 때 전소되었다. 1957년 다시 요사를 고쳤으며, 1958년에는 대웅전을 중건하여 면모를 일신하였고, 내장산국립공원 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요

금산사와 함께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절이다. 동쪽으로 장군봉·연자봉·신선봉, 남쪽으로는 영취봉·연지봉, 서쪽으로는 불출봉·서래봉 등에 에워싸여 있어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으로 사시 풍광명미를 자랑하는 명승지이다. 백양사, 방장산, 장성호, 담양호 등이 주변에 있고 주요문화재로는 내장사 이조등종이 보존되어 있다.

[내장사조선동종]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1974년 09월 27일 지정)

내장사에 있는 조선 후기의 동종으로 고려 후기 동종에서 보이는 일반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 내장사가 중건된 후 전라남도 보림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일제 말기에는 늦쇠 공출을 피하여 원적암에 감추었고, 한국전쟁 중에는 정읍시내 포교당에 피난시켜 보전을 꾀하였다. 높이 80cm, 종신길이 60cm, 구경 50cm의 소형이나 명문이 확실한 조선 후기 범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전북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 모양은 마치 김칫독을 얹어놓은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배부분과 견대, 구연대도 확연하며, 문양대에도 4개의 유곽을 배치하였다.



[영은사지] 전라북도기념물 제63호(1979년 12월 27일 지정)

영은사는 636년 영은조사가 창건하였는데 가람이 50여동에 이르는 대사찰이었다고 한다. 1539년 내장산에서 승려들의 난동이 일어난 뒤 이웃한 내장사와 더불어 소각되었다. 1925년 내장사가 벽련암(碧蓮庵)이 있던 자리로 옮기면서 한때 이름이 벽련사로 바뀌었는데 이때 옛 영은사 자리에는 영은암을 두었다. 영은암은 현재 내장사의 부속암자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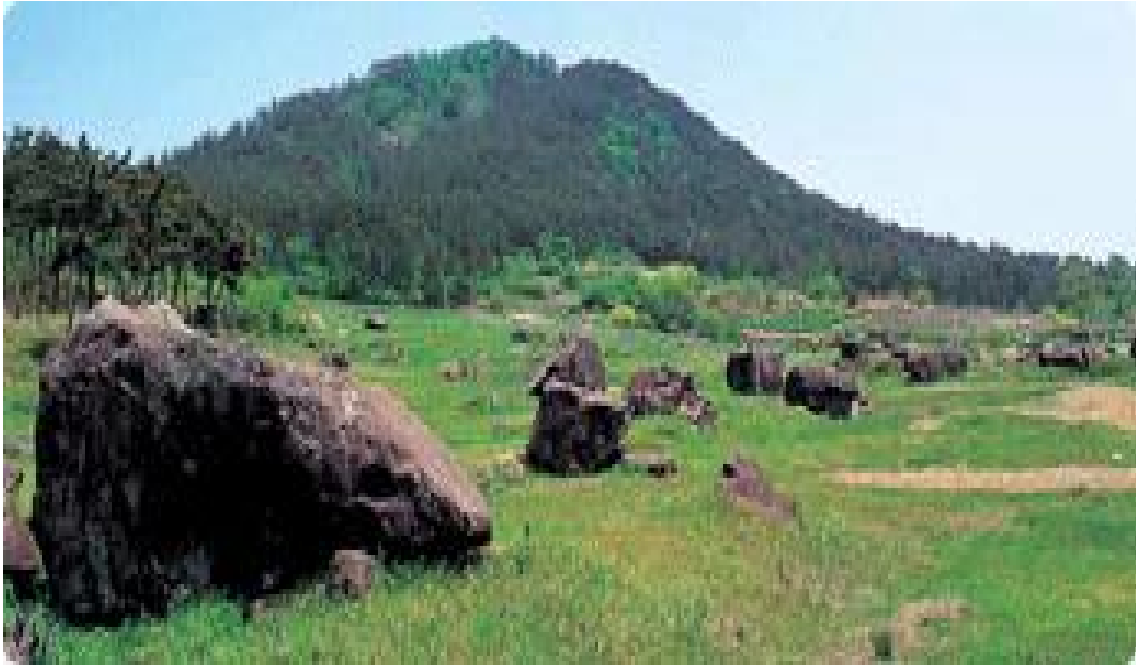
<<출처 및 참고자료>>

두산백과

메모장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종목 : 사적 제391호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시대 : 선사/청동기

분류 : 무덤

발표자 : 홍준호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우리나라에 대체로 3만여 기 이상이 분포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그중 전라북도에 분포한 고인돌은 그동안의 꾸준한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져 약 2,6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창지역은 그 지리적·역사적 배경 때문에 전북고인돌의 63% 이상인, 1,665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어 단일 구역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밀집 분포된 사실로 유명하다.

고창지역 고인돌은 2003년에 205개 군집에 1,655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이후 2005년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는 1,327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으며, 2009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고인돌유적을 제외한 174개 군집에 1,124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고창 지역의 고인돌은 185개 군집

고창 고인돌은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지어 분포되어 있으며, 성틀봉(고성봉)과 중봉의 남사면에 산의 등고선 방향으로 위치하여 있으며, 바로 앞은 고창천이 흐르고 있다. 죽림리 일대의 442기의 고인돌과 도산리 고인돌 5기를 포함하여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숫자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 이른바 탁자식과 변형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각종 형식이 혼재되어 있어 고인돌의 발생과 전개 및 그 성격 면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A large, dark, irregularly shaped rock formation, possibly a natural arch or a large boulder, situated outdoors in a wooded area. The rock has a rough, textured surface and is positioned in the foreground, with trees and a fence visible in the background.

고인돌 유적을 등재기준 제3항(독특하거나 아주 오래된 것)을 적용하여 그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259&cid=47318&categoryId=47318>[illegible]

고창읍성
(高敞邑城)



종목 : 사적 제145호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시대 : 조선

분류 : 성곽유적

발표자 김영주

건립 연혁

고창 읍성은 전라북도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조선 시대의 읍성이다.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고창 지역이 백제 때 모량부리로 불렸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유년에 제주, 화순, 나주의 백성들을 성 쌓는데 동원했다.’는 글이 성벽에 적혀있는데, 계유년이 정확히 어느 해인지 알 수 없으나 성벽을 쌓은 방식으로 볼 때 1573년(선조6)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사적 제 14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형태 구성

고창읍성은 동쪽으로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1684m이다. 조선 시대의 일반적 읍성과 달리 나지막한 야산을 이용하여 바깥쪽만 성을 쌓고 해자를 팠으며, 1976년의 발굴조사 결과 서문 터와 동문 터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자연석을 거칠게 다듬어 킴돌로 사용했는데, 킴돌에는 주춧돌과 당간지주 등을 깨뜨려 쓴 것도 있다. 비교적 잘 보존된 성벽은 최근 보수 공사를 통해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시켜 놓았다. 여장은 남아있지 않다. 성안에는 관아만 있고, 평상시 주민들이 살지 않았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성밖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성안으로 들어와 버티며 싸울 수 있도록 4개의 우물과 2개의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

축성 목적

산성은 성과 연결이 잘 되는 곳에 축성하게 되는데, 고창읍성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입암산성이 있으며, 입암산성은 나주진관과 더불어 호남내륙을 방어하는 요충지였다. 호남내륙에서 한양에 갈 때는 노령산맥인 갈재를 넘어야 했다. 그런데 갈재는 험준하고 봉변을 주는 곳이었다. 이러한 곳을 지키고 영광, 고창, 장성 등 부근 지역의 농산물과 해산물을 법성포를 통해 반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입암 산성이 담당했었다. 서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도 입암산성에서 막아야 하는데, 입암산성과 법성포와 고창, 영광지역은 너무 멀어 입암산성의 힘이 크게 미치지 못해 서해안 일대를 지키는 전초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고창읍성은 이런 이유로 축성되었고 호남내륙을 왜구의 노략질로부터 지켜왔다.

가치 및 의미

고창읍성은 조선시대의 읍성 형태나 구조가 잘 남아있어서 성곽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있다. 또한 한 해의 재앙과 질병을 쫓고 복을 비는 여자들의 성벽 밟기 풍습으로도 유명한데, 이는 민족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출처 및 참고자료>>

문화재청

메모장

--

실상사 (實相寺)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시대 : 통일신라시대

분류 : 불교유적, 사찰

발표자 김지환

실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창건은 통일신라시대인 828년(흥덕왕 3) 홍척이 구산선문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데서 비롯된다. 선종이 처음 전래된 것은 신라 제36대 혜공왕 때인데, 발전을 못하다가 도의와 함께 입당, 수학하고 귀국한 증각대사 홍척이 흥덕왕의 초청으로 법을 강론함으로써 구산선문 중 으뜸 사찰로 발전하였다.

도의는 장흥 가지산에 들어가 보림사를 세웠고, 홍척은 이곳에 실상사를 세워 많은 제자를 배출, 전국에 포교하였는데 이들을 실상사파라 불렀다. 그의 제자로 수철, 편운 두 대사가 나와 더욱 이 종산을 크게 번창시켰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어 약 200년 동안 승려들은 부속암자인 백장암에서 기거하다가, 조선 제19대 숙종대에 이르러 300여 명의 수도승들이 조정의 절의 중창을 상소하여 1700년에 36동의 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1882년(고종 19) 사찰

건물이 소실되는 수난을 겪고, 다시 여러 승려들의 힘으로 중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실상사의 중요문화재들

1. 백장암 3층석탑

높이 5m. 국보 제10호. 전체를 화강암으로 건조한 이 석탑은, 현재의 백장암 남쪽 아래 경작지에 남아 있어 석탑 바로 뒤에 서 있는 석등과 같이 원위치로 생각되며, 그 북쪽에 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뚜렷한 점으로 보아 본래는 백장암이 이곳에 경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기단부의 구조와 각부의 장식적인 조각에서 특이한 양식과 수법을 보여주는, 이른바 공예적인 이형석탑이다. 기단부는 네모난 지대석 위에 별개의 돌로 탑신 받침대를 조성하여 얹고 그 위에 3층의 탑신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받침대의 상면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으나 측면에는 사방에 난간형을 돌을새김하여 둘러서 흥미롭다. 탑신부에서는 초층옥신이 너비에 비하여 높으며 2.3층의 옥신도 감축도가 많지 않아 또한 특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옥개석은 각 층 모두 처마가 직선이고 네 귀 전각의 반전이 경쾌하며 낙수면도 평박하여 신라석탑의 일반적인 법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하면은 층급을 이루지 않고 있어 이것도 또한 특수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상륜부는 약간 결손된 부분도 있으나 방형의 노반석 위에 복발·보륜·보개·수연 등 부재가 정연하게 완전한 찰주에 차례로 꽃혀 있음은 희귀한 유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부 구조에서 전형적인 양식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설계를 볼 수 있고 각 부재의 표면조각에서도 특이한 의장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신라시대 굴지의 아름답고도 특수한 형식의 탑이라 할 수 있다.

2.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보물 제33호. 높이 2.42m. 신라 말 선종 산문의 하나인 실상산문(實相山門)을 크게 일으킨 수철(秀澈, 817~893)의 유골을 모신 승탑이다. 실상사 서쪽에 위치한 극락전의 오른쪽에 있으며, 현재의 자리가 원래의 위치로 보인다. 극락전 왼쪽에는 수철의 스승으로 실상사를 창건한 홍척(洪陟)의 승탑이 서 있다.



승탑은 신라 승탑의 전형적인 양식인 8각원당형(圓堂形)의 모습이 다. 단면 8각의 바닥돌은 제법 높은 편이며, 윗면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바로 받침돌이 놓여 있다. 8각의 아래받침돌은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다. 아래부분에는 제법 높직한 받침돌을 둘러싸고, 그 위의 옆면은 구름 무늬로 장식되었는데, 각 면마다 구름 속의 용이나 사자의 모습이 돌을새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받침돌 위에는 하나의 돌로 조성된 8각의 가운데받침돌 받침돌이 놓여 있는데, 제법 높직하면서 위아래단으로 나뉘어 있다.

가운데받침돌은 낮고 좁은 편으로, 각 면마다 신라 석조물에서 주로 보이는 안상(眼象)이 오목새김되어 있으며, 안상 안에는 사리함(舍利函)이나 주악상(奏樂像) 등의 여러 조각이 새겨져 있어 화사하게 보인다. 윗받침돌은 밑면에 8각의 각진 받침이 3단으로 새겨져 있고, 옆면에는 하나의 꽃잎이 위로 솟아 있는 양련(仰蓮)의 연꽃무늬 16개가 세겹으로 돌을새김되었는데, 꽃잎 안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모두 48개의 연꽃무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화려하게 보

인다. 윗면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이 2단의 각진 킴만 있다.

받침돌 위에는 하나의 돌로 만든 8각의 몸돌 킴돌이 얹혀 있다. 킴돌의 높이는 낮은 편인데, 옆면에는 각 면마다 1구씩의 가늘고 긴 안상이 새겨져 있고, 옆면 윗부분의 덮개돌 모양 밑면에는 마치 석탑 받침돌의 덮개돌에 있는 부연(副椽)처럼 각진 받침이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윗면에는 낮고 각진 킴, 높고 둥근 킴, 낮고 각진 킴 등의 3단 킴이 몸돌을 받치고 있지만, 많이 파손되어 뚜렷하지는 않다.

이 승탑의 북쪽에는 수철화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탑비가 있다. 비명의 내용으로 보아, 이 승탑은 893년(진성왕 7)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실상사 www.silsangsa.or.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메모장

남원 만복사지
(南原 萬福寺址)



종목: 사적 제349호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489

시대: 고려

분류: 절터

발표자 김지훈

만복사지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절터로 사적 제349호이며, 중문지, 목탑지, 동서 금당지, 북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등이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절터에는 고려시대의 오층석탑과 석좌, 당간지주, 석불입상, 석인상 등의 유물과 초석 등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용성지(龍城誌)》에 따르면 통일신라 후기에 도선(道詵)이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었으나, 현존하는 유구는 고려 문종(1046~1083) 이후의 것이다.

가람의 배치는 1탑 3금당식(金堂式)으로, 본탑을 중심으로 북·동·서쪽에 각각 금당이 있고 그 북쪽과 남쪽에 강당과 중문이 있다. 이런 배치는 특히 고구려의 1탑 3금당식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데, 서쪽 금당터가 북·동 금당터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절터는 고려

문종 때 창건된 동탑서전(東塔西殿) 가람배치와 그것을 계승한 조선시대의 1탑 3금당 가람배치가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만복사에 대한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상 기록과도 일치되어 가람배치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굴조사 때 토기를 비롯한 청자·백자 등의 기편(器片)과 금동불입상, 수막새 583점, 암막새 853점 등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어 고려시대 미술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곳에 소재한 유물들로 만복사지5층석탑(보물 제30호)과 통일신라 후기~고려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만복사지석불입상(石佛立像: 보물 제43호), 만복사지석좌(石座: 보물 제31호), 만복사지당간지주(보물 제32호) 등이 보존되어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문화재청 <http://c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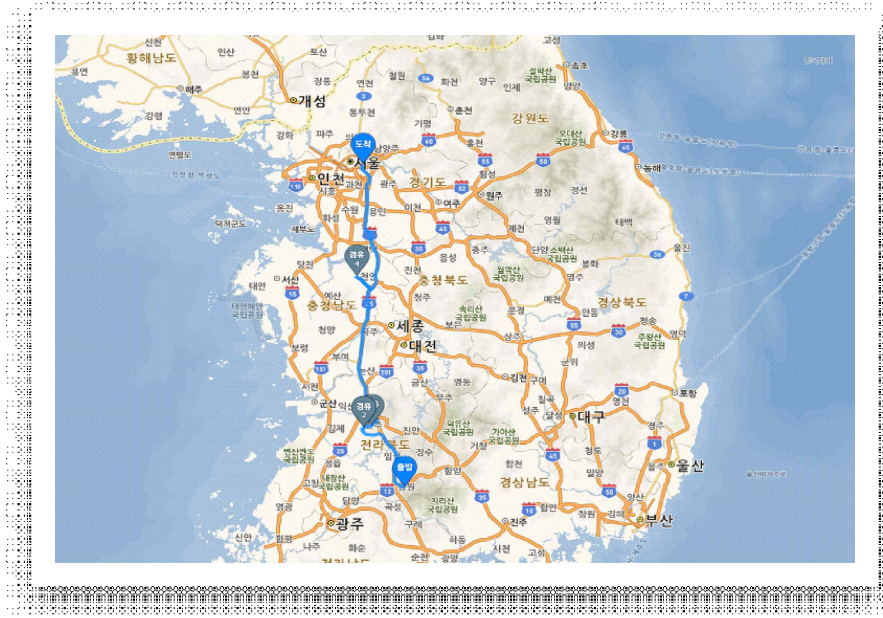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사진 출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사진출처)

메모장

<셋째 날>



숙소->국립전주박물관->전주역사박물관->경기전->아산
현충사->세종대학교

경기전 (慶基殿)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시대 : 통일신라시대

분류 : 불교유적, 사찰

발표자 김채은

이곳은 조선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다. 전주는 원래 조선왕조의 시조인 신라 사공 이한 공의 발상지라 하여 전주 이씨 후손들이 조상을 받드는 성역으로 삼아온 터전이기도 하다. 태종은 1410년에 완산(전주), 계림(경주), 평양 3개소에 태조 강헌대왕의 영정을 봉안하여 어용전(御容殿)이라 하였다. 그후 세종 24년(1442)에는 전주에 경기전(慶基殿), 경주에 집경전(集慶殿), 평양에 영송전(永崇殿)이란 호칭을 붙였다. 그러나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후 광해군 6년(1614)에 중건된 것이다. 한편 영조 47년(1771)에는 경기전 북쪽에 조경묘를 세워 이왕조의 시조인 이한 공과 시조비인 경주 김씨의 신위를 봉안하였다.

현존하는 경기전 건물의 배치는 남쪽의 홍전문을 지나 외삼문을 들어서면 양측에 문간체의 익사를 달아낸 내삼문에 면하게 되는데 그 통로는 전(塹)으로 바르게 깎아 신도(神道)이다. 외삼

문 내정 좌우로는 사고석 담장을 돌렸는데 동측에는 협문을 두고 포장도를 전기 신도에서 이곳으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내삼문 문간체에 양측으로 연결되는 담장에도 각기 1개소씩 일각문을 두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그 북쪽에 내·외삼문과 남북축을 맞추어 정전이 놓이고 그 동·서 양측에 익사 또는 행각이 연결되어 꺾이어 남향하다가 끊기어 그 나머지 부분을 담장으로 연결하여 폐쇄공간을 이루고 있다.

정전은 지대석과 면석, 갑석으로 이루어진 춤 높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계 형식의 맞배집인데 그 전면에 바로 붙여 춤이 약간 낮은 기단을 정전기단과 접속시켜 앞으로 돌출시키고 그 위에 첨각을 두어 마치 능침의 丁자각과 같은 평면을 하였다. 이 첨각기단의 동·서·남면에는 각 1개소씩 계단을 두어 전을 깎 포도와 연결되게 하였는데 남쪽에는 폭이 넓은 신도와 연결되고 동·서쪽은 폭이 아주 좁은 도로로 연결되어 한번 꺾이어 내삼문 쪽으로 향하였다. 정전은 전면에는 띠살 사분합을 달고 측면에는 전퇴 쪽으로 외쪽의 띠살문을 달았으며 그외의 면은 심벽을 쳤다.

공포는 창방과 평방 위에 배열한 내·외 3출목의 다포형식인데 측면에는 포작을 배열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또 전면의 첨각은 전·측면이 단칸으로 벽 없이 트였다. 공포는 주심포 형식이고 지붕은 전면에 풍판을 두고 정전 처마 밑으로 연결시켰다. 정전 양측에 접속된 익사는 동서로 2칸씩 연결되다가 남북으로 뻗은 4칸짜리 행각과 연결되었는데 이들은 내정 쪽으로는 트인 열주를 보이고 외측으로는 벽체로 막혀 있다. 또 정, 익사, 행각의 기단을 약간씩 단차를 두어 위계를 나타낸 것 같다. 이 행각의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다.

경기전의 건물배치에 대하여 상세한 그림으로 그린 ‘경기전, 조경묘도형’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없어진 부속건물들과 별전이 있고 서남쪽에 전사청, 동·서재, 수복방, 제기고 등의 부속건물이 배치되었으며 동북쪽에는 별전과 그 앞에 조산(造山)을 두고 있는 광역의 범위를 조영하였다.

<<출처 및 참고자료>>

두산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답사여행의 길잡이

메모장

--

현충사 (顯忠祠)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시대 : 통일신라시대

분류 : 불교유적, 사찰

발표자 문준혁

● 개요

현충사는 숙종 32년(1706)에 충청도 유생들이 숙종에 상소하여 조정에서 허락을 받아 건립한 사당이며, 현충사라는 이름은 다음 해 숙종에게 하사받았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개혁 정책과 함께 철폐되었으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노한 민족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1906년 유허비를 세우게 된다. 세월이 지나 일제강점기인 1931년 현충사 중건을 시작하였으며 1932년 영정 봉안식을 거행하는데, 이때부터 현충사는 이완과 이봉상을 제외하고 이순신만을 독향하게 된다. 이후 제3공화국의 성역화 사업을 토대로 현재의 현충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유허비에 얽힌 역사

오랜 시간 동안 유허비가 세워진 곳이 원래 현충사의 위치라고 추정만 했을 뿐, 물증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96년 유허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맹인원(孟仁遠)의 문집이 발견되며 현충사의 철폐 시기 및 현충사의 원래 위치 등이 밝혀지게 된다. 현충사는 그 동안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린 1865년에 철폐되었다고 가정했으나 문집에는 무진년(戊辰年), 즉 1868년에 철폐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현충사의 위치는 유허비 바로 밑으로 현 충무교육원 부지라는 것이 드러났다.

문집을 기록한 맹인원은 이이(李珥)에서 송시열(宋時烈)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계보를 이은 유학자였으며, 현충사와 인접한 곳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의리지학(義理之學)의 실천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민영환의 자결을 애도하는 제문 또한 지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그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와 을사늑약이라는 당시 시대상이 맞물려 그로 하여금 현충사 유허비를 세우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 일제 강점기의 현충사 중건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당시 사학자들은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해 과거의 영웅들을 부각하게 되는데, 항일의 상징인 이순신은 여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로 인해 충무공에 대한 전기 저작물이 꾸준히 나오게 되었으며, 각지의 이순신 사우와 비각에 대한 중건과 신축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31년, 이러한 배경 속에 이순신의 종가는 채무에 허덕이고 있었다. 13대 종손 이종옥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만주로 이주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고 돌아와 집에 간이학교인 덕의학교(德義學校)를 세워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 이순신 묘소 일원의 선산과 위토가 은행에 저당잡히게 되었다. 이는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도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후에는 정인보(鄭寅普)가 이에 대한 논설과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를 계기로 충무공 묘소 보존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각계각층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였다. 이에 동아일보는 편집국장 이광수(李光洙)를 아산에 급파하여 기행문을 연재하게 했다. 이광수는 충무공유적순례기라는 제목으로 기행문을 연재하였으며, 이 후에는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 저당잡혔던 이순신 묘소 일원의 선산과 위토를 되찾고도 남을 정도의 성금이 모이자, 윤치호(尹致昊)를 중심으로 이충무공유적보존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남는 돈으로 현충사를 중건하게 되었다. 원래 현충사 유허비를 중심으로 지으려 하였으나 경사가 심하고 구역이 협소함으로 종손이 살고 있는 방화산 남쪽 달애울 고택 위에 현충사를 중건하도록 했다.

● 성역화 사업과 현충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이후 1년만에 현충사 정화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는 충무공 정신을 조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이순신의 대리우상화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무공의 사우인 현충사를 중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충사는 1,300여 평에서 16만여 평으로 규모가 확장되었으며, 본전은 국내 최초의 순한국식 콘크리트 건물로 건립하였다. 사우 관리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담당하였으며, 탄

신기념 행사의 절차와 격식을 조선왕실 선원전의 다례 기준에 맞추고 국가원수가 임석하는 등 청와대에 못지않은 관리를 받게 되었다.

● 기타

현충사 기존 건물은 성역화 사업에 의해 서편 참배로 옆으로 이전하여 구 현충사로 부르게 되었다. 현충사에 모셔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을 참고하여 그렸으며, 1953년에 만들어져 1973년 국가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건물 안쪽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일생 중 큰 사건 10가지를 묘사한 십경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1970년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증한 그림이다.

현충사에는 정려가 있는데, 정려는 충신에게 임금이 편액을 하사하여 그들이 살던 마을 입구에 걸어두는 건물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충사 정려에는 이순신 장군 및 다수의 편액이 걸려있으며, 원래 동남향 정위치에 있었으나 성역화 과정에서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해체·복원하였다.

이순신이 거주하던 고택 또한 현충사 부지 내에 있는데, 전통적 한식 목조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원래 대대로 종손이 살아오다가 성역화사업 당시 경내의 존엄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이주하게 되었다. 고택 뒤편의 가묘에는 현 종손 4대조까지의 신위와 함께 이순신 의 신위가 중앙에 모셔져 있다.

● 생각해볼 점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곳으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오히려 더욱 훼손되고 원래의 뜻을 잃어버린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박정희의 이순신 성역화는 현충사를 현대인의 기준에서 깔끔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이순신을 성웅으로 알린 것 역시 이순신 성역화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성역화는 오히려 현충사를 원래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만들었다. 어떤 국가가 ‘현충사’라는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은 뒤 원래 있던 건물을 ‘구 현충사’로 부르는가? 어떤 중건사업이 동남쪽 정방향으로 있던 건물을 관광객의 편의에 맞추어 서쪽으로 해체·복원하는가? 이것은 복원도 중건도 아닌, 박정희 개인의 욕심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순신 성역화를 반면교사 삼아 어떤 복원이 진정한 의미의 복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현충사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 홍순승, 순천향대학교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사이트 - <http://hcs.cha.go.kr/cha/idx/SubIndex.do?mn=HCS>

사진출처- <http://www.yisunshinusa.com/>

메모장

2017년도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춘계답사 세미나



1. 익산 미륵사의 창건배경 금제사리봉안기를 중심으로

-발표자 : 12 권준혁

2. 동학농민운동

-발표자 : 13 조병건

익산 미륵사의 창건배경 -금제사리봉안기를 중심으로-

역사학과 12학번 권준혁

I. 머리말
II. 미륵사 건축 이전의 역사
III. 서동설화와 미륵사
1) 선화공주와 백제왕비
2) 무왕의 출계에 관하여
3) 익산 지역의 대두
IV. 미륵사 창건을 바라보는 관점
1) 정치적 측면
2) 종교·사상적 측면
3) 대외적 측면
V. 맺음말
VI. 부록
VII. 참고문헌

I. 머리말

미륵사(彌勒寺)는 백제 무왕(武王, 600~641)대에 창건된 사찰로 중원과 동·서원으로 이루어진 3원병렬식의 가람이다. 지난 1974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의 동탑지 조사 이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6 1980~1996년까지 약 17년간의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 사역을 확인했고, 백제 최대의 사찰임을 밝힌 바 있다.¹⁾

미륵사의 배치는 3원에 각각 탑과 금당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중원의 회랑으로 구획되고, 그 북쪽에 있는 강당(講堂)을 동·서·북의 3면에서 승방(僧坊)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건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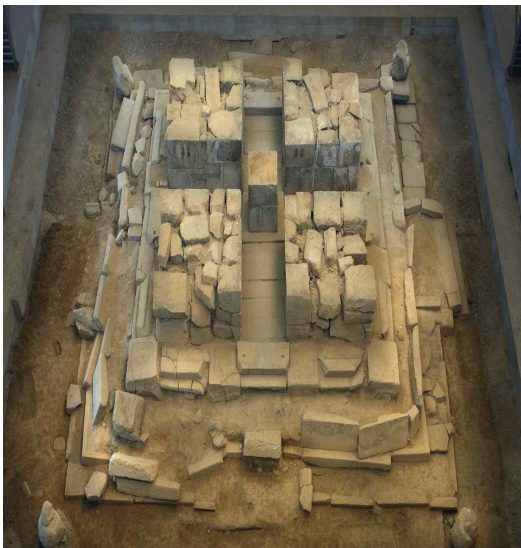
1)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2,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p34

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미륵사의 건립시기인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백제는 물론 신라와 일본에서도 각기 ‘황룡사 9층석탑’과 ‘구다라노 오데라(백제대사, 百濟大寺)’를 조영했다. 당시 대형 불탑건축의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 것인데, 이 중에서도 3원의 건축구조가 각각 금당과 탑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구조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미륵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구성이다.

미륵사는 건축된 이래 계속 경영되다가 신라 말기에 국가적 혼란상태로 인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려초의 승려 혜거국사(惠居國師)의 비문에 따르면 후백제의 견훤(甄萱)이 922년 미륵사를 복원했고, 고려시대에도 번창할 수 있었다. 이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따르면 17세기 말까지도 절은 존속하고 있었으나 결국 폐사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미륵사지는 주변의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와 함께 당시 백제사와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6층 부분까지 잔존했었는데,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의 노후화와 석탑의 구조적 불안정 등이 지적되어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보수를 결정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 10월부터 전라북도와의 협약으로 해체조사 및 학술연구를 진행했고, 지난 2009년 1월 탑의 1층 심주석(心柱石)²⁾을 해체하던 중 사리장엄(舍利莊嚴)³⁾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사리장엄은 백제의 뛰어난 불교미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본론에서 다룰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는 한국 고대사연구에서 귀중히 다루어야 할 1차 사료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금제사리봉안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익산 미륵사의 건립배경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백제 무왕 시기의 정치·외교·종교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하면서 당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미륵사 건축 이전의 역사

익산 지역은 본래 백제의 금마저군(金馬渚郡)이었다.⁴⁾ 이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

2) 심주석(心柱石) : 탑의 중심부를 지탱하는 돌

3) 사리장엄(舍利莊嚴) : 사리를 장식하는 행위, 사리 및 사리를 봉안하는 용기 등 일체의 공양구

4) 『三國史記』 卷第36 雜誌 第5 地理3 “金馬郡, 李校勘 百濟金馬渚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이전(東夷傳)』에 기록된 마한(馬韓)의 54개 소국 중 하나인 건마국(乾馬國)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건마국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익산시 금마면 일대로 비정되었으나⁵⁾ 관련된 문헌 자료는 전무하다. 다만 익산 일대에서 출토된 상당량의 청동유물을 통해 추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도씨검(桃氏劍)⁶⁾과 후한경(後漢鏡)의 존재가 돋보이는데, 건마국의 군장(君長)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섭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 한강 이남의 정치세력은 문헌을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삼국지』와 『후한서(後漢書)』의 관련 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 『삼국지』 「위서 동이전」

[준왕]은 그의 근신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韓)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칭하였다.

『위략』: 준왕의 아들과 친척으로서 나라(=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한씨라는 성을 사칭하였다. 준왕은 해외[의 나라]에서 왕이 되었으나 조선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 뒤 준왕의 후손은 절멸되었으나, 지금 한인(韓人)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將其左右宮人走入海，居韓地，自號韓王。

魏略曰：其子及校勘 親留在國者，因冒姓韓氏。準王海中，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絕滅，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나) 『후한서』 「동이열전(東夷列傳)」

과거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스스로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왕의 후손이 절멸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스스로 일어나 진왕(辰王)이 되었다.

初，朝鮮王 準爲衛滿所破，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攻馬韓，破之，自立爲韓王。準後滅絕，馬韓人復自立爲辰王。

5) 김정배, 1979,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 『韓國史研究』26

6) 도씨검(桃氏劍) : 중국 춘추시대~한대까지 제작되어 한반도에 유입된 청동검의 한 종류. 칼날이 직선으로 뻗어있고, 손잡이는 칼날과 같이 주조되어 있으며, 중간에 마디모양의 돌기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와 (나)의 기사 모두 고조선을 다스렸던 준왕이 위만에게 축출된 이후 바다를 통해 남하하여 한왕을 칭했다고 한다. 『후한서』는 『삼국지』의 기사에서 준왕의 집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마한을 공격하여 제압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또한 한왕과 진왕은 일단 다른 명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상세히 알아보기에는 분량이 부족하지만, 준왕의 집단은 저 기록이 쓰여질 즈음에는 이미 사멸한 것과 기존 토착세력들이 진왕을 자처하며 다시 일어섰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즉 삼한 이전에 존재했던 ‘진국(辰國)’으로 알려진 집단이 남하해온 준왕의 세력을 끝내 절멸시킬 정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국과 삼한 사이의 관계는 물론 진국 자체에 대한 기록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들이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⁷⁾은 문화수준 역시 그렇게까지 뒤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이한 점은 준왕이 바다를 통해 남하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후대에 하나의 학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가)와 (나)의 기사들은 준왕이 상륙한 지점을 추측해볼 어떠한 지명도 기록하지 않았으나, 후대인들은 줄곧 준왕의 세력이 소재했던 곳을 하나같이 익산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자 기자조선이 점차 중시되던 후대에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맥이 마한으로 이어졌다는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이라는 이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이론의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이론이 고착화될 수 있을 정도로 익산지역의 지역적 역량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철기시대 이후로 부여계 집단이 남하해왔는데, 이들이 세운 국가가 바로 백제이다. 백제는 초창기부터 말갈족과 낙랑같은 외적들을 상대로 잦은 전쟁을 치렀다. 또한 속적인 말갈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게 되자 온조왕(溫祚王) 27년(AD 9) 마한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⁸⁾ 물론 기록과 달리 마한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고, 현재의 서울·경기도 정도에 이르는 지역에 소재하던 목지국(目支國) 휘하의 일부 세력을 병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백제는 꾸준히 성장해나갔으며, 4세기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치세 때에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개로왕(蓋鹵王) 21년(475)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자⁹⁾ 부득이하게 웅진(熊津)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외침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백제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성왕(聖王) 16년(538) 사비 천도를 단행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면서 중흥을 꾀했다.

성왕의 국가재정비는 유효했기에 동맹인 신라와 함께 한강유역을 탈환했고, 불시에 당한 기습으로 한강 하류를 또다시 상실하는 와중에서도 설욕전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은 여전히 강했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3만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백제는 다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威德王)은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즉위 시점부터 이미 심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좌평(佐平)직에 있던 귀족들은 국왕의 입지가 약해진 틈을 타서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태자(阿佐太子)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왜국으로 떠나게 된 것과 위덕왕의 동생인 혜왕(惠王)과 그 아들 법왕(法王)의 짧은 치세는 왕권이 상당히 미약해졌다는 점을 드러낸다. 약해진 왕권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무왕의 시대인데, 익산지역은 그런 배경 하에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7) 『史記』「朝鮮列傳」“傳子至孫右渠, 註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校勘 國註 欲上書見天子, 又擁校勘 關不通.”

8) 『三國史記』卷第23 百濟本紀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9) 『三國史記』卷第26 百濟本紀 “高句麗來侵, 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迴. 麗兵雖退, 城破王死, 遂即位.”

Ⅲ. 서동설화와 미륵사

2009년 미륵사 서탑의 심주석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의 내용은 학계에 상당한 충격이었고, 이후 미륵사에 관련한 연구와 재조명이 급증했다. 특히 가장 주의를 많이 끈 대목은 대중에게까지 익히 알려진 선화공주 대신 등장한 백제 왕비의 존재다. 금제사리봉안기 자체는 제법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엄밀히 따져 보면 3번째 문단만 직접적으로 역사적 기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외는 불교적 채색이 짙은 미사여구이다. 하지만 선화공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당시의 언론기사도 보통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가 된 바 있다.

『삼국유사』는 금제사리봉안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가장 많은 비판을 당한 사료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삼국유사』 자체는 애초에 공신력 있는 역사서가 되기 위해 편찬된 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 설화적 내용들은 고고학에서의 발굴 성과와 문헌을 통한 교차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오래 전부터 인정받아왔다. 본문 내용 자체도 편찬 당시 참조한 역사서의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분명히 달려 있다. 정사(正史)를 표방하지도 않았음에도 고대사 연구에 빠져서는 중요한 사료가 되어온 책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선화공주의 실존여부에 대한 논란 하나만으로 전체가 폄하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1) 선화공주와 백제왕비

앞서 지적했듯이 금제사리봉안기의 내용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미륵사의 창건에 기여한 인물이 좌평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는 점이였다.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해 미륵사의 창건 연대는 무왕 40년(639)이며, 미륵사를 지은 인물은 왕비 사택씨라고 확정짓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의문점이 2가지 생긴다. 먼저 미륵사 전체가 이 때 지어진 것이 확실한 것이냐는 점이고, 두 번째는 왕비가 과연 단 1명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먼저 금석문을 다시 보면 사리의 봉안과 가람을 세웠다는 말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가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사찰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라고 보통 해석된다.¹⁰⁾ 그러나 미륵사는 다른 사찰과는 다른 3원식의 건축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람을 사찰의 총칭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독특한 건축 구조가 성립된 이유와 이들 3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가람이 서탑의 소재지 일대로 한정된 지역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사택적덕의 딸이라고 하는 이 백제 왕비의 존재는 선화공주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확언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택씨 가문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피력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숨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반적으로 왕비라 함은 1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당대의 백제는 일부다처제도 합법적인 관행이었다는 의견¹¹⁾도 있다. 같은 부여계 집단이 건국한 고구려는 이미 국초부터 다처제를 시행했음이 알려져 있다. 백제의 경우는 왕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적지만, 의자왕의 아들들인 부여효(扶餘孝), 부여룡(扶餘隆)을 비롯한 복수의 인물들이 동시기에 모두 태자라 기록된 사례가 있다. 복수의

10) 김상현, 2009,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彌勒寺의 再照明』, p147

11) 주보돈, 2010, 「한국 고대사회 속 여성의 지위」 『啓明史學』21

태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국왕이 첩이 아닌 다수의 처를 두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록에서 사택씨 가문 출신임을 명시했다는 점은 다수의 왕비 가운데 사택씨를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외에 기록에서 정재를 희사했다는 부분은 미륵사 창건 과정에서 사택씨 가문이 물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일 외에도 이 지역을 통해 왕권 강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사택씨 가문은 여기에 협력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성팔족¹²⁾ 가운데서도 수위에 속하는 명문가로 발돋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택씨 일가와 익산지역의 관계는 후술할 것이다.

이상 여기서 제기한 2가지 의문점은 수용 여하에 따라서 선화공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을 볼 때 무왕의 시대는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이후이기에, 신라의 공주가 백제의 왕비가 됐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서동 설화 및 미륵사 창건의 주역은 무왕이 아니라는 주장에 타당성을 더해준다. 한편 미륵사지에서 가까운 곳에는 쌍릉(雙陵)이라는 고분 2기가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말릉대왕’ 또는 서동의 묘라고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실질적인 고적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행해졌으나 이미 도굴로 인해 묘의 주인을 확정할 수 없었다.¹³⁾ 다만 최근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와 신라계의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선화공주가 이 묘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¹⁴⁾

애초에 『삼국사기』에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통해 실존을 부정하는 경향이 더 짙어져있으나, 아직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반대측에서는 최근 쌍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그 실존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선화공주의 실존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입장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모자라다. 『삼국유사』라는 책은 확실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설화적으로 승화되어 기재되었다고 여겨지니, 어떠한 상징이 인물화된 것이 선화공주인 것으로 보인다.



12) 대성팔족(大姓八族) : 『수서』 백제전에 나오는 8개의 귀족가문을 지칭하며 ‘사씨(沙氏)’·‘연씨(燕氏)’·‘협씨(狹氏)’·‘해씨(解氏)’·‘진씨(眞氏)’·‘국씨(國氏)’·‘목씨(木氏)’·‘백씨(百氏)’의 8성을 말한다.

13)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p29

14) “익산 쌍릉 大王墓 주인은 선화공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7/2016012700216.html

2) 무왕의 출계에 관하여

서동설화의 내용에 따르면 서동이 백제의 왕위에 오르는 데에는 신라 진평왕이 존경을 표시했다는 것과 백제 사람들이 추대했다는 것만이 씌어져 있다. 국왕이 되었음에도 선대왕과의 어떠한 혈연관계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저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왕의 출신에 대해서는 『삼국유사』가 아닌 다른 문헌에도 일치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북사(北史)』의 경우에는 부여창(扶餘昌) 즉 위덕왕의 아들로 기록¹⁵⁾되어 있다. 그리고 『수서(隋書)』에서는 다시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¹⁶⁾했다. 이러한 관련 자료간의 불일치는 당시 백제의 내부사정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위덕왕의 치세가 길긴 했으나, 뒤를 이은 혜왕과 법왕이 연이어서 2년 정도밖에 재위하지 못했다는 것은 후대 국왕의 입지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혜왕의 경우야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법왕은 사정이 다르다. 위덕왕의 조카이기에 적지는 않은 나이에 즉위했을 것이고 장성한 자식이 충분히 있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무왕의 출생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

설화를 보면 서동 즉 무왕은 서울 남쪽의 못가에 사는 용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다. 용은 보통 왕과 관련된 상징인 경우가 많고, 위치도 서울 남쪽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동을 왕족의 일원이라고 이해할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생업이 산에서 마를 캐다 파는 것이었으니 생활이 빈궁했을 것이다. 이렇게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일은 어떠한 뒷배경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에 반해 고구려의 을불(乙弗) 즉 미천왕(美川王)도 소금장수 노릇을 하며 숨어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그에 관해서는 백부인 봉상왕(烽上王)의 직접적인 탄압¹⁷⁾이 있었기에 그 전후사정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결국 무왕의 혈통은 오리무중이 되는 셈이지만, 백제의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여씨의 일족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성왕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야 한다. 백제의 왕위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성왕의 두 아들이 각기 위덕왕과 혜왕이 되었으며, 혜왕의 아들인 법왕이 있다. 위덕왕도 아들인 아좌태자가 있었지만, 결국 혜왕이 뒤를 이었으므로 이를 설명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왕실이 어떠한 형태로든 심한 견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이를 따져보면 어쨌든 무왕은 항렬상 법왕의 아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문헌들처럼 법왕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설화가 나올 정도로 무왕의 청년시절이 불행했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위덕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북사』에서처럼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덕왕 자신이 80에 가까운 나이까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설화와 비슷한 배경에서라면 무왕은 사생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관산성 패전의 책임으로 입지가 위태롭던 위덕왕에게는 정치적으로 전혀 이득이 될만한 일도 아니고, 무왕의 입장에서 그 긴 치세를 무난히 이끌어갈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가 없는 일이다.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태자는 왕위계승에서 밀려났고, 위덕왕 44년(597) 왜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이후 귀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왕은 아좌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덕왕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부여 왕흥사에서 출토된 명문은 위덕왕 24년(577)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사리를 안장했다는 내용이었다.¹⁸⁾ 이 왕자는 위덕왕의 장자 또

15) 『北史』「白帝列傳」“餘昌死，子餘璋立”

16) 『隋書』「東夷列傳」“昌死，子餘宣立，死，子餘璋立。”

17) 『三國史記』卷第17 高句麗本紀“王使人索乙弗殺之，不得。”

는 차기 후계자였을 것으로 추정¹⁹⁾되며, 무왕의 아버지가 이쪽이라면 법왕 사후 무왕의 즉위는 당연한 절차에 따른 일이 된다. 확정된 것은 아니나 무왕의 출계는 일단 위덕왕의 손자였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익산 지역의 대두

그 동안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웅진·사비와는 달리 익산 지역은 대성팔족의 세력 근거지도 아니며, 그렇다고 왕실인 부여씨 일가와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던 지역도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 1970년 일본 교토의 천태종 사찰인 청련원(靑蓮院)에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라는 10세기의 문헌에서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거기에 따르면 백제는 한때 익산지역으로 천도를 한 적이 있었다.²⁰⁾ 시기는 정관(貞觀) 13년으로 금제사리봉안기에 기록된 무왕 40년(639)과 같은 연도다.

실제로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 5층 석탑과 궁궐 및 사찰터가 미륵사지 근처인 왕궁리에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별궁을 건축했다거나 왕도를 옮겼다는 등의 기록은 없다. 그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백제시대의 왕궁은 맞으나 실제로 어떻게 경영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익산시 측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²¹⁾

무왕은 재위 기간 중에 익산 지역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무왕이란 인물은 그 선대의 왕인 해왕과 법왕이 연달아 사망한 상황에서 즉위했다. 이를 두고 그 왕위계승의 과정에서 실권을 지닌 귀족세력이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왕족 중에서 가장 세력기반이 미약한 무왕이 추대되었다고도 한다.²²⁾ 그럼에도 이후의 행적을 볼 때 귀족들의 주도권은 그렇게 확고한 수준으로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왕 3년(602) 아막산성(阿莫山城: 현재의 성산리산성으로 비정)에서의 전투 당시 무왕은 좌평 해수(解讎)에게 보병과 기병 4만을 붙여주어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만이란 병력은 관산성 전투에 비견될만큼 상당한 수인데다가 이 전투 역시 백제군의 패전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무왕의 권력도 그만큼 약해져야 하겠지만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서동과 비슷한 사례라 할 미천왕은 그 선대왕의 폭정과 본인의 정통성이라는 요소가 맞물려 국왕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서동의 경우는 선대왕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그저 인심에 의해 오른 것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이런 일은 서동에게 무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강력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백제가 이미 29명의 왕이 이어져 내려온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서동은 왕실의 일원이어야 자연스럽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위덕왕의 손자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동이 빈곤한 생활을 한 점은 역시 미천왕의 경우처럼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따르면 위덕왕은 3년이 걸려서야 왕위에 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위덕왕이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빌었던 기간²³⁾으로 보기도 한다. 여하간 그런 정치적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었던 인물은 바로 동생인 해왕이었다. 더구나 위덕왕 24년 왕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으니 해왕의 비중은 자연히 더 커졌을 것이다. 위덕왕과 해

1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의 의미』, 2008

19) 양기석, 2009, 「백제 왕흥사의 창건과 변천」 『백제문화』 41, p45

20) 『관세음응험기』 “正觀十三年 百濟武廣王遷都枳慕密地”

21) “부여 궁남지, 역사적 고증 없는 추측인가?”

<http://m.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682>

22)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196

23) 조경철, 2009, 「백제 왕실의 3년상」 『동방학지』 145, p129

왕이 다 노획한 시점에서는 법왕이 마침 군사권을 쥐고 있기도 했다. 할아버지인 위덕왕을 비롯한 근친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덕왕의 직계 혈족인 서동은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에 따른 도피생활이 이루어진 장소가 서동의 모후와 연관이 있었을 익산지역이었으며, 그렇게 무왕이 유년시절을 보낸 익산은 즉위 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다.

혈통 이외에도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 믿음직한 친위세력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익산의 재지세력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런 지지층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등장하는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비롯한 불교세력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세력집단이었던 대성팔족은 무왕의 전쟁기사를 볼 때 그 중 일부를 포섭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택씨는 왕비를 배출하고 미륵사 건립에 기여하면서 가장 강력한 친위세력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나오는 것처럼 익산지역이 별도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²⁴⁾은 왕권 강화를 위한 세력결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미륵사 창건을 바라보는 관점

1) 정치적 측면

익산지역의 재지세력이 무왕에게 상당한 힘이 되어주었으리라는 추측은 입점리 고분군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모, 중국제 청자사이호 등의 유물들은 이 고분의 주인들이 중앙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당한 세력가였음을 방증한다. 이 지역의 배경을 들어 이들을 건마국의 수장세력 가문에 비정²⁵⁾하기도 한다. 이 재지세력들이 강력하긴 하지만 아직 웅진과 사비라는 기존의 두 왕성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수도를 익산에 조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조건이 좋다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일본서기』에도 궁과 사찰을 조영하고 있었는데 무왕도 이처럼 어떤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익산경영에 착수한 것²⁶⁾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왕이 재위 중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보여야 하는데, 무왕 3년(602)의 아막산성 전투는 말 그대로 군사적 피해가 엄청났던 일이었다. 무왕의 전체적인 전쟁 기록을 볼 때 백제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이끌었던 경향이 짙지만²⁷⁾, 이후 10여년 간 백제군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는 일은 없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유지 가능한 상비군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왕의 익산 경영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돌파구로 보인다. 무왕 본인은 물론 전쟁으로 인한 민심을 달래어줄 안식처가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미륵사 건립에 대한 기사는 익산 지역을 미륵불이 하생하여 성불하는 이상적인 곳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궁궐과 미륵사를 건축한 것은 백성들에게 미륵신앙을 전파하고 그와 더불어 무왕 본인을 전륜성왕과 동격화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려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사리봉안기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미륵사 창건의 발원자는 무왕과 그 왕후였고, 이는 미륵사가 왕실의 원찰이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왕비족인 사택씨 가문의 안녕까지 기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택씨는 사비 천도의 단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기

24) 『대동지지』 益山郡條 “今益山武王置別都於址”

25) 노중국, 2009, 「익산지역 정치체의 사적 전개와 백제사상의 익산세력」 『마한·백제문화』 15, p27~32

26) 박현숙, 2009, 「百濟 武王의 益山 경영과 彌勒寺」 『한국사학보』 (36), p338~340

27)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百濟文化』 42, p64~70

록에 등장하는 가문으로 무왕 초기 기사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가문이다. 엄밀히는 무왕 28년(627) 장군 사결(沙乞)이 신라와의 전투를 치른 시점부터 정계에 다시 진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10여년 뒤에는 이들 가문에서 막대한 재물을 미륵사에 들였는데 그 시점은 마침 무왕이 사비로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기도 한데, 사택씨를 비롯한 기타 세력들을 지지층으로 확고히 돌려놓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미륵사의 건설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왕권의 강화 정도가 상당히 깊게 반영된 조영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종교·사상적 측면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에 관한 기록은 미륵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기록이다. 미륵(彌勒)이란 석가(釋迦)의 입멸 이후 미래의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다. 미륵신앙은 이런 미륵을 받드는 신앙이지만, 미륵이 도래하는 시점을 불교의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의 치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에도 알맞은 신앙이었다.

미륵사 창건의 배경에 따르면 무왕과 선화공주가 용화산 사자사로 가는 길에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나자 미륵삼회를 법대로 본받아 3탑 3금당식의 독특한 구조를 지닌 사찰을 지었다. 여기서 미륵삼회(彌勒三會)는 미륵이 하생하여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미륵삼회는 미륵이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설법을 하는 것이기에 용화삼회(龍華三會)라고도 부른다. 그렇기에 용화산을 가는 길에 미륵이 나타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사리봉안기는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그 문장 속에 미륵신앙과 관련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사리를 봉안하는 행위는 미륵신앙에서도 있다.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미륵신앙의 경전인 『불설미륵하생성불경(佛說彌勒下生成佛經)』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혹은 계율을 지니고 들음이 많거나 선정과 번뇌 없는 지혜를 수행한 이 공덕으로서 나(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며, 혹은 탑을 세워 사리를 공양한 이 공덕으로서 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이니²⁸⁾

결국 사리봉안기의 의도는 탑에 석가의 사리를 공양하여 미륵삼회의 설법에 참여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사리봉안 역시 미륵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조화 가능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불교는 원래 불경 중에서도 『법화경(法華經)』을 중시하는 법화신앙이 성했다.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서탑에서는 열핏 보아선 미륵신앙적인 요소가 안 보인 것은 사택씨 가문의 신앙적 배경과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왕 4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인물인 사택지적은 대좌평을 역임하고 보물 제1845호인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를 남겼다. 여기서 그의 이름인 지적(智積)은 불교 관련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법화경』 화성유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 부처님(=대통불大通佛)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열여섯의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적(智積)이다 (중략) 그 조부인 전륜성왕은 1백 대신과 백천만억 인민들과 더불어 도량에 나가 대통지승여래(大通智勝如來)를 다 같이 친근하고 공양공정하며 존중 찬탄하였다.

(중략) 그 가운데 두 사미(沙彌)는 동방에 성불하니 첫째 부처는 아합(阿閼=지적)으로

歡喜國에 계시고 … 열 여섯째 부처는 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며, 이

28) 「불설미륵하생성불경」(한글장 157권 p404)

사사국토(娑婆國土)에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성취하였느니라.²⁹⁾

이에 따르면 계보상 전륜성왕-대통불-지적,석가모니가 되고, 지적과 석가모니는 형제관계다. 일찍이 성왕은 아버지 무령왕의 명복을 빌고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하여 대통사(大通寺)를 창건한 일³⁰⁾이 있다. 이후 위덕왕과 법왕이 선대왕을 위해 능사를 창건한 일이 이어지는 것과 왕의 시호가 불교식이었던 것은 성왕의 시대부터 백제 왕실 스스로 석가모니의 가계와 의도적으로 일치시키려 했음을 드러낸다.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택지적은 지적에 대응되는 인물일텐데 기존에는 왕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관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리봉안기를 통해 이들이 당시 왕실과 인척이었다는 점은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 지적이란 이름은 의도적으로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미륵사는 당대의 백제에서 유행했던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의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륵불과 석가모니불이 딱히 대립하는 관계인 것도 아니어서, 서탑 및 사리봉안기가 일견 미륵신앙과 무관한 유물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고 있을 수 있었다.

3) 대외적 측면

639년이라는 연도는 사리봉안기에 기재된 연도인 것 이외에도 익산의 또 다른 왕실사찰인 제석사(帝釋寺)가 소실된 일과 왜왕 조메이(舒明)가 백제대사를 창건한 일이 동시에 벌어진 해이기도 하다.

조메이는 이외에도 이와레(磐余)에 백제궁이란 것을 지은 기록이 있다. 당대의 일본은 아스카시대³¹⁾로 대 귀족이었던 소가노 우지(蘇我氏)의 본거지이자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의 소재지이다. 소가노 가문 역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가문으로 이들에 의해 왜왕이 암살되거나, 조카딸을 왜왕의 자리에 앉혀 버리는 등 전횡이 심했었다.

왜왕이 최초로 발원한 사찰인 백제대사가 아스카와는 거리가 있는 곳을 부지로 하고 있는 것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639년에 백제대사도 일부 소실되어 왕권의 회복이 녹록치는 않았음을 암시한다.

시간이 지나 646년 다이카 개신(大化改新)으로 소가노 가문은 멸망하고, 백제대사는 조영공사가 재개되어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찰로 남게 되었다. 이 때 멸망한 소가노 가문은 본래는 일본에 불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세력이었고, 백제와의 교류도 활발했다. 하지만 백제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자 같은 왕권 강화를 도모하던 일본 왕실측에서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무왕 역시 관록(觀勒)이란 인물을 파견하는 등 교



29) 『妙法蓮華經』 化城喻品 (한글장 41권 p102,103,114)

30) 조경철, 2007, 「백제 웅진 대통사와 대통신앙」 『백제문화』 36

31) 아스카시대(飛鳥時代) : 6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걸쳐 아스카(현재의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촌 근방)에 궁전, 도시가 세워진 시대

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백제와 왜는 각기 사찰조영사업과 왕권 강화란 동일한 목적과 수단을 두고 상부상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이상 미륵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창건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륵사의 소재지인 익산 지역을 조사하면서 고대로부터 지역적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했으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백제는 중흥기를 맞았다가 관산성 전투로 인해 또 다른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륵사의 창건을 발원했던 것으로 여겨졌었던 무왕과 선화공주가 사리봉안기의 발굴로 인해 논란이 커진 관계로 주로 『삼국유사』와 비교해가면서 선화공주는 실존 가능성을, 무왕은 그 태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화공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허구적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그리고 무왕의 경우 위덕왕·법왕 등의 설이 난립하는 가운데 왕흥사지 발굴로 위덕왕이 일찍이 떠나보낸 아들이 있었던 것이 증명되어 무왕의 출계를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존에는 백제사에서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익산이 갑작스레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주목해보았다. 익산 지역은 고조선의 준왕이 내려온 곳이라는 민간의 전설 정도 외에는 확실한 기록이 부족한 지역인 반면에, 백제와 관련된 유적·유물은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재지세력은 이미 세력이 상당했었는데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무왕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은 지역이다. 비록 기록은 별로 없다고는 하나 백제가 왕실의 차원에서 큰 관심을 쏟은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미륵사를 정치적, 종교·사상적 그리고 대외적 측면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조명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모두 왕권의 강화와 연결지어졌으나, 그 외의 소득도 있었다. 종교·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의 조화가 반영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외적 측면에서는 백제와 왜의 교류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문헌을 통한 연구외에도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해보려고 시도했었다. 그 결과 책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던 사실을 본문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미흡한 글로는 그 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VI. 부록

※ 부록 1. 『삼국유사』 무왕조³²⁾

무왕(武王) -고본(古本)에는 무강(武康)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

제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못의 용(龍)과 관계하여 [장]을 낳고 어릴 때 이름을 서동(蓍童)이라고 하였다.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生業)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때 문에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공주 선화(善花) -혹은 선화(善化)- 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갔다.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니 그것은 이러하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에 가득 퍼져서 대궐 안에까지 들리자 백관(百官)들이 임금에게 극력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게 했다. 장차 떠나려 하는 데 왕후(王后)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노자로 쓰게 했다. 공주가 장차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서동이 도중에 나와 절하면서 장차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믿고 좋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가면서 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고, 동요의 영험을 믿었다.

함께 백제에 이르러 모후(母后)가 준 금을 내어 장차 살아 나갈 계획을 의논하니 서동이 크게 웃고 말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공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황금이니 백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동이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흠처럼 많이 쌓아 두었소”라고 하였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이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입니다. 그대가 지금 그금이 있는 곳을 아시면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동은 “좋다.”고 말하였다. 이에 금을 모아 언덕과 같이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가서 금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神通한 힘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이리로 가져 오시오”라고 하였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가져다 놓았다. 법사는神通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어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부터 인심을 얻어서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彌勒) 삼회(三會)를 법상(法像)으로 하여 전(殿)과 탑(塔)과 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 -《국사(國史)》에서는 왕흥사(王興寺)라고 했다고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工人)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삼국사(三國史)》에는 이를 법왕(法王)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32) 일연, 『三國遺事』 卷第2 紀異篇 武王條 http://db.history.go.kr/id/sy_002r_0010_0210_0010

앞면

竊以法王出世隨機赴
感應物現身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示滅雙
樹遺形八斛利益三千
遂使光曜五色行遶七
遍神通變化不可思議
我百濟王后佐平沙毛
積德女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撫育萬
民棟梁三寶故能謹捨
淨財造立伽藍以己亥

뒷면

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
願使世世供養劫劫無
盡用此善根仰資 大王
陛下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上弘
正法下化蒼生又願王
后卽身心同水鏡照法
界而恒明身若金剛等
虛空而不滅七世久遠
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

해석

가만히 생각하건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의
사리를 남겨 3천大千세계를 이롭게 하셨다.
마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사리를 7번
요잡(遶匝)³⁴⁾하면 그 신통한 변화는
불가사의할 것이다.

우리 백제의 왕후께서는 좌평인
사택[탁]적덕의 따님으로서 지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선인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불교의 동량이 되셨기에 능히 정재를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

원하옵건대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을 자량으로 삼아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왕후의 신심은 수경과 같아서
법계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며, 금강 같은
몸은 허공과 나란히 불멸하시어 칠세의
구원까지도 함께 복리를 입게 하시고, 모든
중생들이 다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33) 주보돈, 2012, 「彌勒寺址 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 王妃」『百濟學報』제7호, p33~34

34) 요잡(遶匝) :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함.

VII.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2016, 『세계유산 백제』
-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2012,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王宮里 發掘中間報告X』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신편 한국사』 4권 「초기국가 - 고조선 · 부여 · 삼한」
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 백제」
- 이다운, 2013, 「‘大寺’창건과 百濟 · 倭의 교섭」 『동북아 문화연구』 34
2013, 「고대 일본의 백제불교 전개와 정치변동 - 사찰 창건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과 종교문화』 56
- 김선숙, 2007, 「『三國遺事』 武王條의 薯童說話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문화연구』 42
- 박윤선, 2009,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한국고대사연구』 53
- 장미애, 2010, 「무왕의 세력기반으로서 익산의 위상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0
- 사재동, 2009 「彌勒寺址 文物의 藝術史的 考察」 『국학연구론총』 3
- 주보돈, 2012, 「彌勒寺址 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王妃」 『百濟學報』 제7호
- 김수태, 2010, 「백제 무왕대의 대신라 관계」 『百濟文化』 42
- 조경철, 2009, 「백제 익산 미륵사(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 -미륵신앙(彌勒信仰)과 법화신
앙(法華信仰)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2

동학농민운동

13011983 조병건

목차

1. 머리말
2. 동학농민운동의 기반
3. 1차 농민 봉기
4. 청일전쟁
5. 2차 농민 봉기
6. 결과와 의의
7. 참고문헌

1. 머리말

동학농민운동은 중.고등학교 국사시간에도 많이 다루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제이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록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녹두장군 전봉준, 고부군수 조병갑, 전주성 화약 등 몇 가지 키워드들은 생각이 날 것이다.

이번 2017년도 춘계 답사의 장소가 전라북도이고 전라북도가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과 주된 무대였던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다시금 알아보고 예전의 기억들을 회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 사건이 근대사의 시작이자 한반도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 동학농민운동의 기반

동학은 수운 최제우가 1860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창시한 민족종교이다. 명칭은 당시 서학에서 대립된 것이다. 당시 조선은 오랜 기간의 세도정치로 정치적 기강이 문란해져있고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심화되어 있던 상태였고 거기에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농민들은 점점 지쳐갔다. 또한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과 조선에 대한 간섭으로 위기감이 조성되어있어 서학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농민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의 유포 및 미륵신앙이나 도참사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반봉건, 반외세적 민중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학은 농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동학의 사상은 우주만물이 지극한 기운이라는 ‘기일



수운(水雲) 최제우

원론'에 기초해 있음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극한 기운은 지기로서 하늘, 땅, 사람, 정신, 마음은 모두 지기의 표현으로서 하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일체화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다. 거기에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는 사상과 5만년에 걸친 선천의 시대가 지나고 후천의 시대가 개벽했음을 주장하는 ‘후천개벽사상’ 그리고 선천의 종말기를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만을 위하는 ‘각자위심’의 시대로 보았는데 현재 서양 열강의 이기주의가 이 각자위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여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주장했던 것 들은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민중의 마음을 흔들기에 적합하여 고달픈 농민들이 더욱 열광했을 것이다. 또한 유무상자라는 공동체 정신

은 가난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서로 도와 뭉치게 하였다.

동학이 1860년에 창시된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교도 수가 급증하자 1863년 포접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많은 교도들이 모이는 각 처에 접소를 두고 지방의 유지를 접주로 삼아 교세를 늘려갔다. 이러한 포접제는 동학의 단위조직으로서 굳어졌고 교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져갔다.

이렇듯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반봉건, 서학과 서양 열강을 배격

하려는 반외세적인 혁명지향적 사상과 유무상자정신 그리고 포접제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 유력자의 존재와 교도들의 결속력은 동학농민운동의 기반으로 서 작용했다.

동학은 1880년대 말부터 제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해 익산, 전주, 삼례 등의 지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1891년에 이르러서 최시형은 부안, 태인(정읍), 금구(김제)를 돌며 동학조직을 정비하였고 그 결과 1892년 전라도의 지역에서 동학의 교세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호남지방에서 동학이 퍼지는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도되었고 개항으로 인해 민중의 피해는 전국적으로 커져갔다. 그 결과 1890년대에 접어들 즈음에는 민중들 사이에서 반외세를 더욱 거세게 외치기 시작하였다. 서학이 서양의 무력과 결합된 종교로 인식하던 동학교도들은 반외세 경향과 관련하여 서학에 대한 직접적인 배격을 시작하였는데 1892년 1월 14일 전라도 고산, 계량 등지에 조선인 가톨릭 교도와 서양인 신부를 배격하는 벽보가 게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1864년 최제우가 정부에 의해 사로잡혀 처형되며 사교로 몰린 동학은 꾸준히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그 이후 교조 최제우의 신원1)과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어왔는데 1890년대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력이 확대되자 전봉준, 서인주 등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교조신원운동을 척왜양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교주인 최시형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여 북접과 남접으로 나뉘어졌다. 1892년 11월 교통의 요충지인 삼례에서 삼례집회가 열렸고 전북의 수많은 교도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접은 척왜양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일반 농민과 동학교도가 결합해나갔다. 전북 일대의 동학교도들이 척왜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포조직에서도 20명의 대접주중 11명의 대접주가 전북지역 출신으로 전북의 동학 교세가 다른 곳보다 더 컸다. 이렇게 전북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이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집단적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였다.

3. 1차 농민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저지른 만석보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 징수사건이었다.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부임 초부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게 한 뒤 추수기에는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였고 부유한 백성은 온갖 누명을 씌워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다. 이토록 갖은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하자 농민들은 억울한 사정을 민소의 형식으로 군수에게 진정하기로 하고 동학접주 전봉준을 필두로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진정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집강에게 보내는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다. 전봉준은 말목장터에 군중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인 군중들과 함께 고부관아로 쳐들어가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전라감사 김문현과 조병갑은 사건에 대해 추궁당하고, 후임 고부군수로 용안현감이었던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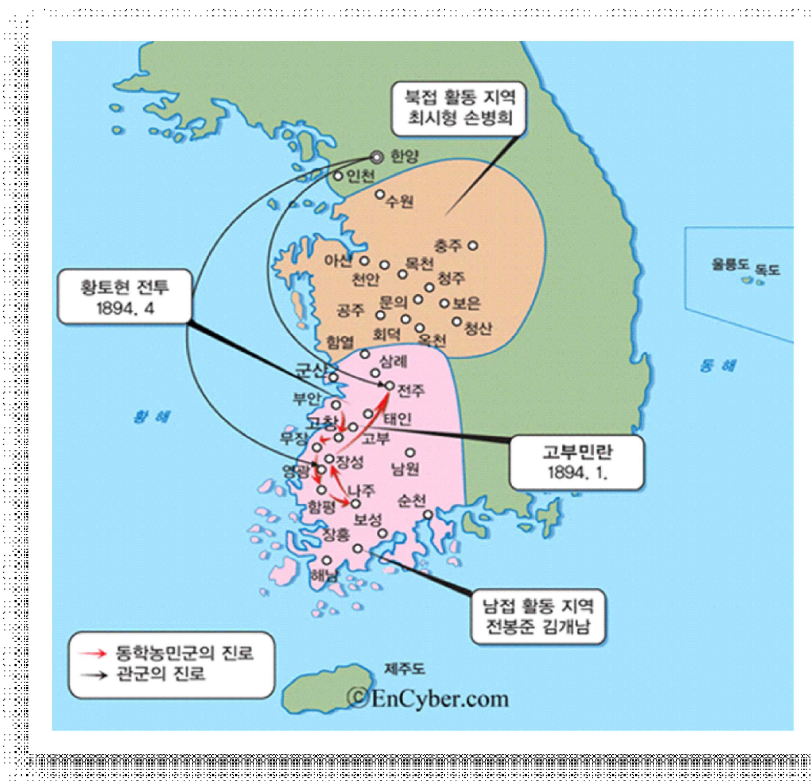
원명이 임명되고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³⁵⁾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신임군수 박원명의 농민군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유화책과 안핵사 이용태의 사후 처리방식을 통해 이 사태를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행위는 또 한 번 농민군의 격분을 샀다.



전봉준

격분한 농민과 함께 고부를 떠난 전봉준은 무장에서 손화중 등의 동학접주들과 함께 ‘호남창의소’라는 이름 아래 ‘창의문’을 선포하였다. 창의문은 4개의 행동강령으로 1.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3. 일본오랑캐를 내쫓아 성도를 밝힐 것, 4.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를 모두 죽일 것 등이었다. 이 선포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전봉준은 고부로 다시 쳐들어갔다. 고부 점령 후 전봉준은 백산으로 진을 옮겼고 계속 몰려와 결집된 농민군의 수는 약 8천명 가량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런 사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관군을 보냈으나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접전을 벌여 대패하고 기세가 오른 동학농민군은 정읍, 고창, 무장, 영광까지 진격하여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의 높은 사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조정에 증원군을 요청하는 동시에

1) 억울함
2) 조선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처리를 위하여 파견한 임시관직으로 주로 민란발생시에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1차 봉기 동학농민군의 진로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도록 건의하였다.

홍계훈은 전주성에서 출발하여 정읍, 고창을 경유하여 영광에 들어섰으나 농민군은 이미 장성과 나주 방향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격을 시도하였다. 전봉준은 이를 예상하고 황룡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토사의 경군과 접전을 벌이게 된다. 처음에는 경군의 별도대를 통한 기습으로 경군이 우위를 점하는가 싶었으나, 즉시 동학농민군에서 반격을 벌여 경군은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더

욱 거세져 북상하게 되고 이윽고 전주성에 육박하였다. 전주성에 무혈 입성한 농민군은 경군과 큰 성과없이 전투를 벌이기를 반복하였다. 이때 조선의 구원 요청을 받은 청군이 상륙하였고 일본은 이에 텐진조약을 구실로 삼아 조선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서로 소모전이 지속되고 점차 경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정에서는 구원군이 필요없음을 청나라와 일본측에 알리고 상륙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청과 일본 측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상륙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조정과 동학농민군은 위기감을 느끼고 외세를 먼저 자국에서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게되고 화약을 맺게 된다. 이에 조정에서 농민군이 원하는 폐정개혁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게 된다.

4. 청일전쟁

조정과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맺은 의도는 외국 군대가 자국에 주둔할 빌미를 없애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이 진정되어 해결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과 일본은 계속해서 주둔하기 위해 빌미를 찾기 위해 정찰을 파견하여 계속해서 농민군의 동향을 살피고 정보를 끌어모았다. 이때 조선의 경군은 표면적으로는 청과 일본의 군대가 도성에 입성하여 국왕의 신변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목 그리고 실제로는 청과 일본의 군대를 철수할 수 있도록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주에서 철수하여 귀경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소규모의 농민군이 해산 경로나 고부, 태인 등지에서 습격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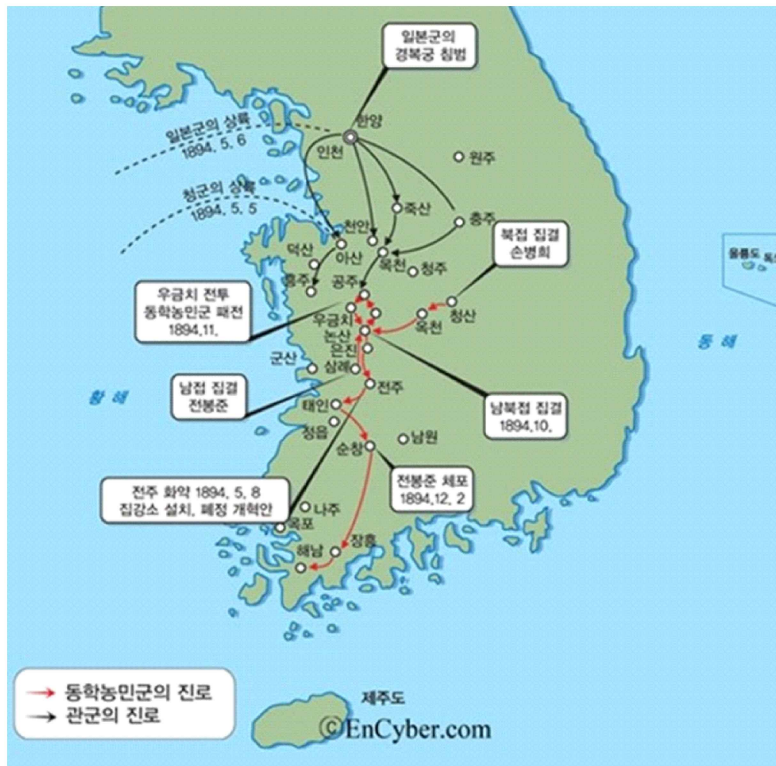
하고 있다하여 철병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5월 9일부터 일본공사와 청의 위안스카 이 사이에 공동철병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은 이 교섭을 결렬시키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청과 일본의 조선의 공동내정개혁을 제의하였다. 일본의 예상대로 청국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후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위원 임명과 개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조선은 일본군의 철병이 우선이며 자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알리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일본은 조선 주둔 일본군에게 간접적으로 청일전쟁의 개전을 허락하였고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점령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고종은 포로로 묶이고 조선의 군대는 무장해제 되었으며 친일내각을 수립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어 6월 23일에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 풍도 앞바다의 청국 함대에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일본은 6월 27일 성환전투에서 승리하고 1만 4천여명의 대규모 육군을 평양으로 집결시킨 청군마저 8월 17일에 격파하며 만주까지 진격하였다.

5. 2차 농민 봉기

동학농민운동은 전주화약으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본군과 청군의 공동철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한반도가 타국의 전쟁터가 되고, 일본이 노골적으로 침략해오자 척왜양을 내걸었던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 번 봉기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농민군 대집회가 7월 15일에 남원에서 열렸는데 이는 농민군의 확실한 명령체계와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봉준은 9월 초 삼례에 전라도 각 지방의 농민군들을 모두 집결시켰다. 2차 봉기때는 기존의 농민군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접의 군대까지 합류하여 공동전선을 펼치게 된다.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은 논산에 모여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공주로 갔다. 공주에서 동학농민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식무기로 무세한 화력을 갖춘 관군과 일본군들이었다. 농민군은 공주성 공격을 시작으로 이인전투, 대교전투, 효포, 능치전투에서 계속해서 패퇴를 거듭하다 최후의 항전인 우금치 전투에서도 대패하여 후일을 기약하며 모두 해산하게된다. 전봉준은 태인으로 올라가던 중, 옛 부하의 밀고로 인하여 체포되고 김개남은 남원에서 복상하였으나 청주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아 전주로 후퇴하고 여기서도 공격을 받아 태인 방면으로 패주하다가 붙잡히게 된다. 또한 손병희를 비롯한 북접 주력부대는 순창까지 패주하다가 본거지인 충청도로 재복상하였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습격에 충주에서 해산되었다.

6. 결과와 의의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하였고 제국주의를 꿈꾸던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확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러한 결과가 후에 한일병합으로 인한



2차 봉기 동학농민군의 진로

이 봉기했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들은 인간평등, 부정부패의 척결, 외국 침략세력 축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봉기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개혁의 내용들은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실천되지 못했으나 후에 갑오개혁에서 상당수 실천되었기에 수천년간 이어오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충분히 혁명으로 불릴 만하고 근대와 현대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이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는 이후 일제의 수탈에 맞서는 배경이 되었고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였던 동학농민군은 후에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이 운동의 주무대가 전라도와 충청도였기에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이 운동은 강원도, 경상도 등지에서도 전국적으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

7.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한국학보 11권』 3호, 109-137p
- 조성운, 2014.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의 관계 -포접제와 관련하여-」, 『역사와 교육』 제19집, 105-130p, 역사와 교육학회
- 박맹순, 2001.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한 재검토」, 『동학연구』 제9.10집, 101-134p, 한국동학학회
- 배항섭, 2015.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동학사연구』 제170호, 61-95p, 한국사연구회
- 배항섭, 2004.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군사지』 제53호, 219-253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광, 2014. 「동학혁명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서학과의 관계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2014년 3월호, 10-21p, 대한기독교서회

◎ 답사를 함께하는 사람들!

조교 : 엄태건

10학번 : 이성민

12학번 : 계기철 권준혁 류재웅 손동완 정호규

13학번 : 김용재 김재훈 유지훈 이건웅 이원범 원희진 조병건 김우성

14학번 : 강태규 김진선 박태서 이시은 유창훈

15학번 : 김다운 임수진 장운정 장혜민 홍은채 빙재민

16학번 : 고희석 구교후 권이성 김영주 김지환 김지훈 김채은 문준혁
박성주 박지선 서민우 이석규 이세민 이창희 임영준 조윤영
홍상원 홍준호 정한별

17학번 : 곽종은 김도희 김선화 김수정 김태영 김태욱 박신영 박지원
송지은 신동명 신동협 신유원 안우석 이연준 이지환 전무영
전찬영 최홍석 황근영 황신선

◎ 즐거운 답사를 위한 Tip!!

1. 약속시간 지키기!

- 답사일정은 역사학과 학우 분들 모두와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2. 개인행동은 금물!

- 우리는 역사학과입니다. 혼자 유적지를 방황하거나 숙소에서 무단외출 하는 등 돌발행동은 삼가주세요.

3. 유적지에서 역사학과 학생답게!

- 유물, 유적은 우리가 지키기에도 부족합니다. 소중히 다루는 것이 역사학과만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4. 술은 마시되 과음은 금물!

- 술자리에서 즐겁게 노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정도 생각해야겠죠?

5. 개인 소지품 관리!

- 문 열린 집을 보면 괜히 들어가 보고 싶은 것처럼 개인 물건은 처음부터 잘 관리합니다.

◎ 편집 후기

안녕하세요! 15학번 답사부원 홍은채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이번 답사 열심히 준비했어요 :-)

진짜 신입생이었던게 엇그제 같은데, 설렜던 마음으로 15년도 춘계답사를 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마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가 직접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준비하는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답사에서 윗 학번 선배님들과 제 아래 16학번 후배님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17학번 새내기 후배님들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드백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도움 많이 주신 하문식 교수님! 학교 갔을 때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항상 피드백 잘 해주신 10학번 태건오빠, 그리고 학교 매번 일찍 오고 사전 답사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던 14학번 태규오빠, 군대 간 제 절친 동기! 저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前 답사부원 15학번 효봉이, 제가 일 못할 때 잘 챙겨준 다운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늘 즐겁게 해줬던 16학번 후배 성주,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할 일 잘하고 사전답사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던 16학번 후배 민우까지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말이 주저리 주저리 많았지만 ㅠㅠ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당♥ 사랑해요 역사학과 >0<

여러부우운!! 안녕하십니까? 16학번 답사부원 박성주입니다!!

답사에 참여해주신 선배님, 동기님, 후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17학번 후배님들은 역사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답사를 처음 가시는 건데 상당히 의미 있고 재밌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답사에 도움을 주신 하문식 교수님, 엄태건 조교님, 15학번 장효봉 형, 김다운 형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16학번 답사부원 서민우입니다.

역사학과 최대의 행사인 답사를 기획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이 준비한 답사인만큼 처음 답사를 가시는 17학번 후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재학생 여러분들도 즐겨주시고 이번 답사가 역사학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하문식 교수님, 엄태건 조교님, 그리고 15학번 장효봉, 김다운 형들께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2017년도 답사추진위원장 14학번 강태규(010-8615-3426)

첫날 점심식사 : 전통엄마순두부 063-836-9358

첫날 저녁식사 : 세르빌 대궐식당 063-538-9487

첫날 숙소 : 세르빌 호텔 063-538-9487

둘째날 아침식사 : 세르빌 대궐식당 063-538-9487

둘째날 점심식사 : 태흥갈비 063-564-2223

둘째날 저녁식사 : 금성가든 063-625-8717

둘째날 숙소 : 켄싱턴리조트 남원점 063-636-7101

마지막날 아침식사 : 켄싱턴리조트 남원점 063-636-7101

마지막날 점심식사 : 자유식

2017년 3월 20일 초판인쇄 및 발행

펴낸 곳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답사추진위원회

펴낸 이 : 강태규

총 책임편집 : 박성주

책임편집 : 서민우, 홍은채

디자인 : 홍은채

출판 마케팅 : 홍은채

감수 : 엄태건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군자동, 세종대학교)

집현관 903호 역사학과 유물자료실

협의 없는 무단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